

집으로 가는 길 장윤서  
★최우수상



꺼지지 않는 불꽃처럼 윤희원  
★우수상



녹두장군의 전담호위가 되었습니다 박가은  
★장려상



대장부 — 소토산에 서다 이우림  
★장려상



녹두꽃 전쟁 김현태  
★장려상



녹두장군의 부인으로 회귀했습니다 한가람  
★장려상



원웃의 꿈 김사연  
★장려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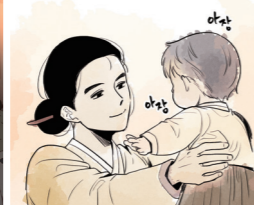
황토재 이규복  
★장려상



이소사 — 끊이지 않는 불꽃 머랭 비산  
★장려상



녹두 오동규  
★장려상



남겨지다 김한희  
★인스타툰 장려상

Donghak Peasant Revolution  
× Webtoon

2024. 05. 11. — 08. 05.  
동학농민혁명기념관 기획전시실

# 녹두꽃

2024

1894

여름

56

130th  
Anniversary

## 전봉준 공초(全琫準 供草)



39×21cm,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소장 / 출처: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위 기록물은 1894년 12월 2일 관군에게 체포된 전봉준이 서울로 압송되어 법무아문 권설재판소에  
서 1895년 2월 9일(이하 음력), 2월 11일, 2월 19일, 3월 7일, 3월 10일 모두 다섯 차례에 걸쳐 열린  
재판의 신문기록(訊問記錄)이다. 총 274개의 문답을 기록한 이 사료는 동학농민혁명의 배경과 목  
적, 전개 과정, 기병 목적, 동학농민군의 규모, 전봉준의 동학 입도 의도와 역할, 흥선대원군과의 관  
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귀중한 사료이다.

# 녹두꽃

2024

여름

56

## 차례

<b>특집 1</b>	제130주년 동학농민혁명기념식	02
<b>특집 2</b>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특별 대담	08
<b>전시</b>	동학농민혁명 웹툰 공모전 수상작 특별 전시	14
<b>기념재단 포커스</b>		16
	서울대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업무협약(MOU) 체결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업무협약(MOU) 체결 '동학농민혁명' 용어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등재 제19차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명예회복 심의위원회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유족등록통지서 전달식 이만열 전 국사편찬위원장 동학농민혁명 대상 시상금 기부 동학농민혁명 130주년 TV 방송 홍보 '동아시아 민주평화인권 네트워크' 단체 초청 학술지 『동학농민혁명 연구』 제2호 발간 동학농민혁명기념관 보수	
<b>유족 인터뷰</b>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기봉진의 증손 기경도	22
<b>뉴스 초점</b>		28
	제3회 세계혁명도시 연대회의 '근대혁명 도시들의 기억과 연대' 세계사에 전북비엔날레 '동학농민혁명 130주년 기념 특별전'	
<b>웹툰 공모전 대상 수상자 인터뷰</b>		
	「향아설위」 이지현 작가	32
<b>인권과 평화</b>		
	동학농민혁명 마지막 항진지 기행 '대둔산 벼랑 위에 선 동학농민군' 제76주년 4·3 추념식 참관기 '평화의 땅 제주를 위한 서사'	35 38
<b>지역단체 포커스</b>	전국 기념 단체 행사	40
<b>교육 체험, 방문 단체</b>	녹두꽃, 다시 피다	48
<b>2024년 교육 체험·해설 안내</b>	박물관, 기념공원, 기념관 프로그램	50
<b>언론에 보도된 동학농민혁명</b>		51



『녹두꽃』을 전자책으로 만나 보세요.

구독신청 ☎ 063 530 9416

통권 56호 발행일 2024년 7월 1일 발행인 신순철 발행처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주소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덕천면 동학로 742 전화 063 530 9400 팩스 063 538 2893  
이메일 1894@1894.or.kr 홈페이지 www.1894.or.kr 편집디자인·제작 두인

동학농민혁명 정신

# 민주와 평화의 꽃으로 피어나다



정부, 지자체, 기념 단체, 시민 등 1,500여 명이 130주년 동학농민혁명기념식에 참석하여 동학농민혁명 정신을 되새겼다. (중앙 한복: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지난 5월 11일 동학농민혁명기념공원에서 ‘모두 다 꽃이야’를 주제로 제130주년 동학농민혁명기념식이 열렸다.

문화체육관광부 주최,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주관으로 진행된 기념식에는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유족을 비롯하여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신순철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이사장, 주영채 (사) 동학농민혁명유족회 이사장 등이 참석하였다. 또한 130주년 기념식을 위해 윤준병 국회의원,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 김영록 전라남도지사, 국주영은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장, 서거석 전북특별자치도 교육감, 이범창 천도교 총무원장, 이상갑 광주광역시 문화경제부시장, 이학수 정읍시장,

김인태 전주시 부시장, 기념사업 관계자, 시민 등 1,500여 명이 함께하였다.

기념식은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3,815명의 명패와 무명 농민군의 닛을 모신 추모관에서 헌화(獻花)로 시작하였다. 이어진 본행사는 ‘무장포고문’ 낭독 퍼포먼스, 국민의례,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기념사, 주영채 동학농민혁명유족회 이사장과 신순철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이사장의 환영사, 130주년 축하 영상, 주요 내빈들의 폐정개혁안 낭독, 연합 합창 순으로 진행되었다.

문화체육관광부 유인촌 장관은 기념사에서 “동학농민혁명은 인간 존중과 평등의 가치를 실현하고자 일어난 혁명이며 정부는 동학농민혁명의 자

유, 평등, 애국애족 정신을 계승·발전시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특히 이번 기념식에는 전국 민족민주운동 단체 관계자들이 함께하여 의미를 높였다. 이재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이사장(전 국회의원), 이행봉 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 이사장, 진현경 부마민주항쟁기념재단 상임이사, 원순석 5·18기념재단 이사장, 정구도 노근리국제평화재단 이사장, 부미선 4·3평화재단 사무처장 등이 참석하였다. 주영채 이사장은 “동학농민혁명 130주년 기념식에 우리나라 민족민주운동 단체 관계자들이 함께하여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라고 감회를 밝혔다.

신순철 이사장은 환영사에서 “130년 전 민주주의와 자주 국가의 씨앗이 되었던 동학농민혁명 정신을 이어받아 이제 우리가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어야 할 때이다.”라고 130주년의 의미를 강조했다.

올해로 130주년을 맞는 동학농민혁명은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을 열망한 근대 민주주의 혁명이자 일본의 국권 침탈에 맞선 민족주의 혁명으로 평가받고 있다. 또 모든 생명을 존중하고 ‘사람이 하늘이다.’라는 인본주의 정신에서 오늘날 우리에게 요구되는 공존과 화해, 평화와 상생의 길을 제시하고 있다.

한편 기념식 전후로 동학농민혁명기념공원 일원에서 정읍시 주최로 세계혁명도시 연대회의, 제57회 동학농민혁명기념제가 함께 열려 동학농민혁명 130주년을 축하하고, 그 의미를 널리 알리는 기회가 되었다.



1. 헌화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동학농민혁명 참여자 추모관  
2. 민족민주운동 단체 관계자  
3. 헌화 세계혁명도시 국외 내빈/동학농민혁명 참여자 추모관  
4. 식전 공연 '무장포고문' 낭독 퍼포먼스/극단 베이스캠프



국민의례(국기에 대한 경례 낭독 및 애국가 제창) 좌로부터 유족 대표 합기영·문영식·김용선·송영례 이사



폐정개혁안 12개조 낭독 좌로부터 이학수 정읍시장, 이상갑 광주광역시 문화경제부시장, 국주영은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장, 윤준병 국회의원, 김영록 전라남도지사,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 정탄진 동학농민혁명유족회 사무총장, 고재국 전국동학농민혁명연대 대표, 김인태 전주시 부시장, 이찬준 김제시 부시장, 김철태 고창군 부군수, 최영두 부안군 부군수.



애국가 제창



환영사 주영체 (사)동학농민혁명유족회 이사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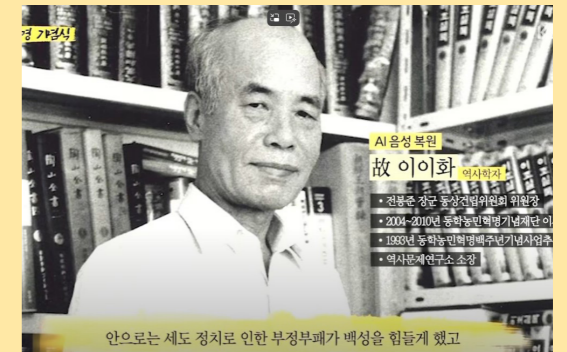
환영사 신순철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이사장



130명 연합 합창(녹두꽃 시민합창단, 정읍시립합창단, 전주여성합창단, 라보체 합창단)  
〈새야새야 파랑새야〉, 〈농민가〉, 〈동학농민가〉, 〈모두 다 꽃이야〉



축하 영상(시 음성복원) 故 한승헌 변호사



축하 영상(시 음성복원) 故 이이화 역사학자

#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기념사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유인촌입니다.

오늘은 동학농민혁명 130주년 기념일입니다.

먼저, 낡은 봉건체제의 억압과 외세의

침략에 맞서 비분강개(悲憤慷慨)하여 분연히 일어섰던 동학농민군 선열들의 명복을 빕니다.

동학농민혁명의 애국애족 정신을 기리고

참여자들과 그 유족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힘써 오신 주영채 동학농민혁명유족회 회장님, 신순철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이사장님, 여러 유관

기관과 단체 관계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그리고 동학농민혁명의 정신 선양에 언제나

뜻을 같이해 주시는 국회 윤준병 의원님,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님, 김영록 전라남도

지사님과 귀빈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 이 자리에 함께해 주셔서

행사의 의미를 더욱 뜻깊게 만들어주고

계신 유족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이곳은 130년

전 오늘, 나라의 기틀을 바로잡아 백성의 삶에

안정을 가져오고(輔國安民), 폭력과 억압에서

백성을 구하고자(除暴救民), 결연히 일어난

동학농민군이 크게 승리한 역사의 현장인

황토현입니다.

동학농민혁명은 단순한 봉기가 아니었습니다.

참된 삶과 공동체에 대한 고민이었고, 혁명을

통해 생겨난 인간관은 백성들의 마음에 널리

자리잡았습니다. 동학농민혁명이 추구하는

‘인내천(人乃天)’ 사상은 정치적인 주장과 요구를

넘어, 우리 민족 문화의 정수이자 핵심 가치인

인간 존중과 평등사상을 대변하는 정신이자

근간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이제 경제와 문화 양면에서  
명실상부 세계 중추 국가로 성장했습니다.

최근에는 한동안 주춤했던 경제가 되살아나며

OECD, S&P 등 국제기관들도 일제히

한국 경제를 긍정적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인들이 좋아하고 즐기는 한국

문화는 대한민국의 위상과 국격을 높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누리는 경제 성장과 자유

민주주의 그리고 이를 이끌어가는 국민들의

힘은 동학농민혁명이 남긴 유산 중 하나일

것입니다.

정부는 동학농민혁명 정신을 계승하기 위하여

2004년에 특별법을 제정하여 참여자와

유족의 명예 회복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5월 11일’을 국가 기념일로

지정하여 2019년부터 매년 기념식을 거행하고

있으며, 2022년에는 이곳 황토현에 공원을

조성하여 동학농민혁명 정신을 되새기는 공간을

마련하였습니다.

작년에는 뜻깊은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바로 동학농민혁명 기록물이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된 것입니다.

동학농민혁명은, 한국인뿐만 아니라 전 세계인이

함께 나누고 지켜나가는 세계사의 소중한

기억이자 유산이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에게는

그 정신과 가치를 미래 세대에 오롯이 전달하는

새로운 숙제가 주어졌습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유족, 지자체와 관련 단체

그리고 국민들과 함께 동학농민혁명의 숭고한

애국애족 정신을 더욱 발전시키고 확산시켜

나가겠습니다. ‘사람이 곧 하늘’이라는

동학농민혁명의 정신이 이 땅의 민주주의와

더불어 영원히 살아 숨 쉬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 5. 11.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유인촌



동학농민혁명 130주년 기념  
문화체육관광부 유인촌 장관님 특별 대담이 이어집니다.

# 유인촌

##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인터뷰

이번 호 『녹두꽃』에서는 동학농민혁명 130주년을 맞아 동학농민혁명 정신을 범국민적으로 확산하기 위해 문화체육관광부 유인촌 장관님을 모셨다. 서면으로 진행된 인터뷰는 장관님과 동학농민혁명의 인연, 동학농민혁명 130주년의 의미, 2차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독립유공자 서훈 추서 등 다양한 현안에 대한 폭넓은 대화가 이루어졌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 동학농민혁명기념공원 내(內) 불멸, 바람길(전봉준 장군과 동학농민군상) 방문

### ● 인사 말씀

안녕하세요. 장관님, 동학농민혁명 유족과 기념사업 단체 관계자를 비롯하여 국민 여러분께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유인촌입니다. 올해는 동학농민군이 불의와 압제에 저항하고 외세의 침략에 애국애족 정신으로 봉기한 130주년이 되는 뜻깊은 해입니다. 동학농민혁명은 긴 시간 동안 제대로 평가받지 못해 참여자와 유족분들의 고통이 컸지만 지난 1994년, 100주년을 맞이한 이후 서서히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긴 시간 고통 속에 살아오신 유족분들에게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동학농민혁명에 관심을 가져 주신 국민 여러분과 혁명의 진실과 역사를 바로 세우기 위해 노력해 주신 많은 연구자와 기념사업 단체에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 ● 장관님과 동학농민혁명의 인연

장관님과 동학농민혁명 및 기념재단과의 인연이 특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몇 가지 소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2010년 문체부 장관으로 일할 때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이 문체부 산하 기관으로 설립되

었습니다. 동학농민혁명 정신을 계승하고 선양하는 전담 기관이 재임 기간 출범하게 된 점 뿌듯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2010년 3월에는 동학농민혁명기념관을 방문했던 기억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1994년 100주년 기념행사에서 전봉준 장군 역으로 참여하였습니다. 현장 예술인으로, 문화 행정 책임자로 일하는 동안 동학농민혁명과 다양하게 연결되었던 것이 오늘 이렇게 인터뷰까지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지난 13년 동안 기념재단 활동이 본격화되고, 정읍 황토현에 기념공원도 개원하고, 유족 등록 사업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130주년 기념식까지 거행하는 시점에 다시 문체부 장관으로 일하고 있다는 것이 그저 우연만은 아니라는 생각에 기쁘기도 하고 책임감도 느끼게 됩니다.

### ● 동학농민혁명 130주년 평가

올해 동학농민혁명 130주년입니다. 동학농민혁명 정신을 계승하고 선양하는 사업을 담당하는 주무 부처 장관으로 130주년을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요?

동학농민혁명은 당시 조선이 안으로 부패하고, 대외적으로 강대국들의 침략에 노출된 시점에 전국에서 분연히 일어선 농민군의 혁명으로, 그 바탕엔 우리 민족 문화의 정수이자 핵심 가치인 인간 존중과 평등 정신이 깔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나아가 오늘날의 경제 성장과 문화 국가로서의 위상을 다지는 데 크게 이바지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동학농민혁명 130주년을 맞이한 지금, 이제 우리는 동학농민혁명을 단순한 과거의 사건으로 기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신순철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이사장에게 '불멸, 바람길' 동상에 대해 설명을 듣고 있다. (2024. 5. 11.)

념하는 것을 넘어, 그 정신을 계승하고 현 세대에서 미래 세대로 이어가는 데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방향에 초점을 맞춰 앞으로 동학농민혁명 관련 사업을 만들어 내고 또 추진해 나가야 하는 전환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작년 유네스코 기록유산 목록에 우리 '동학농민혁명기록물' 185건이 등재된 것이 그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 ● 동학농민혁명 유족과 참여자에 대한 위로·격려

동학농민혁명은 우리 역사에서 오랫동안 제대로 평가받지 못해 참여자와 유족들에게 고통과 회한이 길게 이어진 사건입니다. 100주년 이후 많은 분의 노력과 정부와 관련 부처 등의 노력으로 혁명으로 정당하게 평가받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관련 업무를 담당하시는 장관님이 직접 유족과 참여자들에게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해 주신다면 큰 의미가 있을 듯합니다.

동학농민혁명이 동학란으로 불리게 되고, 한국 전쟁 등을 거치면서 오랜 기간 제대로 평가받지 못했습니다. 이 때문에 동학농민혁명의 중요한 내용들이 후대에 제대로 전달되지 못한 것도 사실입니다. 또한 혁명 참여자의 후손이 끊어진 경우도 있고, 선조의 동학농민혁명 참여 사실 자체를 모르는 후손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동학농민군이 그리고 그 후손들이 바로 역사의 찬사를 받는 용기 있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유족과 참여자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동학농민혁명이 국민들에게 올바르게 인식되고 평가 받을 수 있도록 정부는 계속 관심을 두고 관련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 동학농민혁명 헌법 전문 명기

최근에는 유족회와 기념사업회, 관련 지방자치단체에서 동학농민혁명 정신을 헌법 전문에 명기하자는 입장입니다. 5·18 광주민주화운동도 마찬가지고요. 이 현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동학농민혁명, 5·18 광주민주화운동 등은 우리 역사에서 정의와 평등, 인권, 민주주의 가치 등을 담고 있는 소중한 역사입니다. 동학농민혁명의 정신과 가치를 볼 때 헌법 전문 명기의 당위성은 충분하다고 생각하지만, 잘 아시다시피 헌법 전문 명기는 국회 차원의 충분한 논의와 국민적 합의가 필요한 사안입니다. 정부는 더 많은 국민의 지지와 공감대를 얻을 수 있도록 다양한 선양 사업과 연구와 조사 활동, 관련 단체와 학계 등의 다양한 활동 등이 이루어져 더 폭넓은 국민적 공감대와 합의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130주년 동학농민혁명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동학농민혁명기념공원, 2024.5.11.)

● 동학농민혁명 2차 봉기 서훈

동학농민혁명 2차 봉기군에 대한 독립유공자 서훈은 정부 부처 간 논의가 더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학계와 시민사회, 동학농민혁명 관련 단체 등에서 2차 봉기는 일본 제국주의에 대한 명백한 저항이며, 일제 강점기 때 독립운동의 밑거름이 되었다는 점을 밝히며 독립운동 서훈 추서가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다는 점을 살펴주시길 요청드립니다.

유족분들이 깊은 관심을 갖고, 노력하고 계시는 서훈 논의는 저도 내용을 잘 알고 있으며 그 취지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학계의 깊이 있는 논의와 관계부처와 지속적인 협의, 국민적 공감대 형성, 국회 차원의 합의 등 많은 노력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논의 외에도 우리 문체부에서는 동학농민혁명 정신을 드높이고 참여자분들의 헌신과 숭고한 정신을 기리기 위한 다양한 방법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 동학농민혁명 전국화·세계화 방향

동학농민혁명은 전북특별자치도에서 시작했지만 전국 각지에서 일어났고, 지난해에는 그 기록물들이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되어 세계화를 위한 첫걸음을 시작했습니다. 그럼에도 자랑스러운 혁명 정신을 전국화하고, 세계화를 위한 방법과 방향이 무엇인지 고민이 많습니다. 문화적 유산과 가치를 전국화하고 세계화하는 방향과 전략을 장관님의 시각으로 듣고 싶습니다.

동학농민혁명기록물의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는 전 세계인으로부터 동학농민혁명을 세계사적으로 기억해야 하는 이정표임을 인정받았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번 등재를 동학농민혁명 정신 선양의 중요한 도약점으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동학농민혁명이 지역을 초월하여 전국 각지로 확산된 것은 중요한 역사적 사실입니다. 동학농민혁명의 전국화를 위해 먼저 이루어져야 할 것은 주요 지역 간 연대를 통해 다양한 문화·관광 콘텐츠를 발굴하고 이를 지속해서 시행하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또한, 이에 대한 학술 연구와 조사, 지속적인 기념 사업, 각종 홍보와

교육 사업들이 챗바퀴 돌아가듯 추진될 때 동학농민혁명 정신의 전국적 향유가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동학농민혁명은 세계적인 혁명·운동과 비교해 볼 때에도 매우 우수한 민주주의 가치, 평등사상, 인권사상을 가진 혁명입니다. 그런 점에서 더 많은 국가와 지속적이고 실질적인 교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정읍시가 3년째 주도하고 있는 '세계혁명도시 연대회의'는 그 대표적인 모범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동학농민혁명 관련 기록물이 작년에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된 것을 계기로 동학농민혁명 관련 콘텐츠 개발을 통해 전 세계인과 함께 이 숭고한 정신을 공유할 때, 미래 세대로 계승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동학농민혁명 정신 미래화 방향

학자들은 역사를 기억하고 기념하는 것은 과거를 통해 현재를 반추하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설계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젊은 미래 세대가 동학농민혁명 정신을 어떻게 배우고, 계승해 나가는 것이 좋은지 장관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동학농민혁명 정신은 현재 세계 여러 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전쟁, 사회 전반의 팽배한 이기주의와 물질 만능주의는 물론이고, 기후 변화 위기 등을 풀어갈 수 있는 미래지향적 가치를 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동학농민혁명은 반봉건 반외세를 외쳤습니다. 그 밑바닥에는 모든 인간은 존엄하고 평등하여 모든 만물이 공존·공생하자는 사상이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혁명은 사람과 자연의 공존과 화해,



언론사와 동학농민혁명 130주년 의미에 대해 인터뷰하는 유인촌 장관

생명과 평화, 상생을 근본적 바탕으로 두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점을 자라나는 학생들과 젊은 세대들과 함께 나누고 미래 세대에 어떻게 전해야 하는지가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 동학농민혁명을 전통문화 콘텐츠의 관점으로 접근하여 다양한 체험 및 교육, 관광 자원화를 통해 미래 세대가 쉽게 접근하고 향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단체나 학계, 자치단체에 대한 바람**

동학농민혁명과 관련해 많은 단체가 다양하게 연대하고, 시군 및 시도 간 협력도 잘하고 있다

는 평가입니다. 주무 부처 장관님께서 이 주제와 관련한 미래지향적인 의견을 주시면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동학농민혁명의 흔적이 남아 있는 모든 지역은 우리 모두가 기억해야 할 중요한 역사의 현장들입니다. 그만큼 해당 지자체와 기념 단체의 연대가 필요하고, 그렇게 될 때 비로소 동학농민혁명의 진정한 정신이 국민에게 온전히 전달되고 미래 세대로 전승된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지자체와 기념 단체, 유족회, 연구자 등이 선양 사업과 정신 계승 사업에 합심하여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정부도 언제나 현장에서 여러분들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어려움이 있다면 머리를 맞대어 함께 방법을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 **동학농민혁명 관련 문화예술 활동 진흥**

동학농민혁명 130주년을 맞아 문체부에서 동학농민혁명과 관련된 문예사업(영화, 다큐멘터리, 공연, 문학 등)을 발굴하고 그 지원을 확대해 주신다면, 대한민국 문화예술계에도 큰 힘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우리 국민에게는 동학농민혁명 정신이 현재와 미래에도 소중한 가치라는 것을 알리는 데 큰 추진력을 얻게 될 거라 믿습니다. 장관님께서 직접 동학농민혁명 관련 문화예술 분야에 대한 지원과 관심을 밝혀 주신다면, 관련 문화예술 활동이 크게 활성화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동학농민혁명의 문화예술 활동 진흥, 즉 문화 자원화와 관련된 주제는 향후 동학농민혁명 정신 확산과 미래 세대로의 계승에 있어 매우 중요한 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신순철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이사장에게 동학농민혁명기념공원에 대한 설명을 들으며 기념공원을 둘러보고 있다.

한 나라의 국력은 군사력이나 경제력만이 아닙니다. 어쩌면 문화적 능력, 문화예술 분야의 다양한 자원과 창의력이 진정한 그 나라의 국력을 가늠하는 잣대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를 세계적인 보편성으로 승화시키는 능력, 시대적 흐름을 선도하는 콘텐츠 개발 등이 더욱 중요해진 상황이 되었습니다.

130년 전, 동학농민군의 정신을 오늘날의 보편성과 시대성을 갖는 다양한 작품과 사업으로 만들어 낸다면 그 효과는 매우 클 것입니다. 문체부 장관으로 동학농민혁명 관련 문화적 자산을 키우고, 역량을 높이는 데 깊은 관심을 두고 있

다는 말씀을 드리고, 좋은 사업이나 구상을 제안해 주신다면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의 무궁한 발전과 『녹두꽃』 독자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을 늘 기원합니다. 동학농민혁명 정신이 우리 사회를 보다 따뜻하고, 평화로운 세상으로 만드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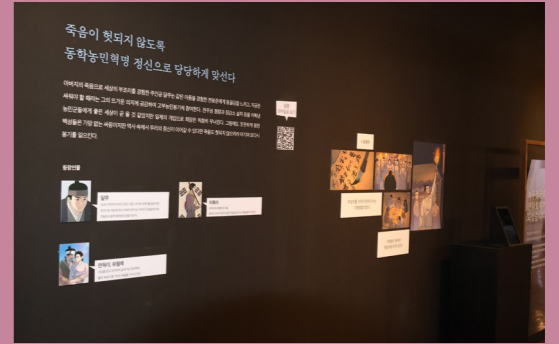
동학농민혁명

# 웹툰 공모전 수상작 특별 전시

전시기획 : 박아영 동학농민혁명기념관 학예사

기간 2024. 5. 11. ~ 8. 5.

장소 동학농민혁명기념관 1층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은 2024년 5월 11일부터 8월 5일까지 「2023 동학농민혁명 웹툰 공모전 수상작」을 전시한다. 동학농민혁명기념관 1층 특별 전시실에서 열리는 이번 전시는 2023년 8월부터 올해 1월까지 진행된 웹툰 공모전에서 수상한 작품 12편을 소개하고 있다.

세계는 지금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미디어 산업과 SNS의 발달에 힘입어 국가·개인 간 물리적 거리감은 좁혀지고 타민족의 역사·문화에 대한 수용성은 그 어느 때보다 높아졌다.

더군다나 지난 2023년에는 우리 재단의 숙원이었던 동학농민혁명기록물의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가 이루어져 동학농민혁명의 역사가

대한민국 국민뿐만 아니라 세계 인류가 마땅히 공유하고 기억해야 할 자랑스러운 역사로 인정받게 되었다.



전시관 입구

이러한 시대적 상황은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 및 정신 선양 사업을 수행하는 우리 기념재단에도 큰 숙제를 안겨 주었다. 즉 세계인과 더불어 미래 세대의 누구라도 쉽게 흥미를 느끼고 관심을 기울일 수 있는 다양한 문화 콘텐츠 발굴이 절실해진 것이다.

이번 「2023 동학농민혁명 웹툰 공모전 수상작」 특별 전시는 이러한 대중적이고 독창적인 문화 콘텐츠 발굴을 모색하는 과정의 일환이며, 향후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의 나아갈 방향을 좀 더 넓고 다양하게 조망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준비했다.

“오직 한없이 가지고 싶은 것은 높은 문화의 힘” 이라던 백범 김구 선생의 염원을 생각하며, 「2023 동학농민혁명 웹툰 공모전 수상작」 특별 전시가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 콘텐츠의 세계화를 향한 작은 디딤돌이 되기를 소망한다.



체험부스 '나도 웹툰작가'

## 서울대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업무협약(MOU) 체결



3월 25일 서울대 규장각한국학연구원 대회의실에서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이사장 신순철, 이하 기념재단)은 서울대 규장각한국학연구원(원장 정공식, 이하 규장각)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하였다. 규장각은 대한민국 국보 8종, 보물 30종,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7종 등 약 25만 종의 유물을 소장하고 있는 대한민국 대표 자료관이자 학술 연구기관이다.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된 동학농민혁명기록물은 총 185건으로 이 중 기념재단이 66건, 규장각이 58건을 보유하고 있다.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된 동학농민혁명기록물의 교류와 전시, 연구 등에 소장 기록물, 자료, 연구 결과 등을 공유하여 세계기록물의 효율적인 활용에 나설 계획이다. 협약식을 마친 관계자들은 규장각 수장고와 수리복원실을 둘러보고, 규장각에서 소장하고 있는 동학농민혁명기록물을 비롯한 규장각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특별전을 관람하였다.

##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업무협약(MOU) 체결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이사장 신순철)은 국립아시아문화전당(전당장 이강현)과 4월 9일 업무협약(MOU)을 체결하였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은 5·18민주화운동의 표상(表象)인 인권과 평화의 의미를 예술적으로 승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2015년 개관했다. 개관 이후 아시아 국가간의 문화교류, 연구, 교육, 콘텐츠의 창·제작, 전시, 공연, 아카이브 등이 한 곳에서 모두 이루어지는 세계적인 북

합문화예술공간으로 자리매김하였다. 양 기관은 국내외 네트워크 자원을 적극 활용하여 ▷문화예술 육성과 진흥 및 보급 ▷콘텐츠 공동개발 및 운영 ▷국민의 문화접근성 향상을 위한 사업 발굴 등을 협력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기념재단은 이번 협약을 통해 동학농민혁명 정신을 문화예술 전시, 공연 등과 접목시켜 아시아와 세계 무대로 확장시킬 계기로 활용할 예정이다.

## ‘동학농민혁명’ 용어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등재



기념재단의 오랜 노력 끝에 지난 4월 국립국어원에서 발행하는 표준국어대사전에 공식적인 용어로 ‘동학농민혁명’이 등재되었다. ‘동학농민혁명’을 지칭하는 용어는 역사적 인식이나 관점에 따라 운동, 혁명, 전쟁 등으로 다양하게 불렸다. 해방 이후 교과서에는 ‘동학란’으로 표기되어 1963년까지 사용되었다. 1987년부터 현재는 ‘동학농민운동’으로 표기하고 있다. 2004년 특별법이 제정되면서 법률·행정·학술 각 분야에서 ‘동학농민혁명’이라는 용어가 정립되었고, 이런 흐름에 따라 표준국어사전에도 ‘동학농민혁명’으로 등재된 것이다. 향후 중·고등학교 역사 교과서 기술(記述) 변경 추진 등에 긍정적 요소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 제19차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명예회복 심의위원회



4월 11일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에서 제19차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명예회복 심의위원회가 열렸다. 이날 회의에는 24건의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및 유족등록 건안이 상정되어 참여자 2명, 유족 218명의 등록을 심의·의결하였다. 이로써 현재까지 등록된 참여자는 3,817명, 유족은 13,394명이다.

이날 회의에는 신순철(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이사장) 위원장과 구선희(전 국사편찬위원회 편사연구관)·김춘성(천도교 교서편찬위원)·배향섭(성균관대 교수)·주영채(사단법인 동학농민혁명유족회 이사장)·이해돈(문화체육관광부 문화정책관(代 이선혁 사무관)) 위원이 참석하였다.

##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유족등록통지서 전달식



동학농민혁명 기념일인 5월 11일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녹두학당에서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유족등록통지서 전달식이 열렸다. 이날 전달식은 지난 4월 11일 개최한 제 19차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명예회복심의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참여자 유족을 모시고 진행되었다.

전달식에는 신순철 명예회복심의위원회 위원장(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이사장), 주영채 (사)동학농민혁명유족회 이사장, 신규 등록된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유족과 관계자 등 70여 명이 참석하였다.



## 이만열 전 국사편찬위원장 동학농민혁명 대상 시상금 기부



지난 5월 11일 제14회 동학농민혁명 대상을 수상한 이만열 전 국사편찬위원장(이하 위원장)이 시상금 2천만원 전액을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에 기부하였다. 이만열 위원장은 “이 상은 제1회에 김대중 전 대통령이 수상하였고, 개인적으로 1980년 민주화운동 때 해직으로 고난을 같이 겪은 송기숙 교수께서도 수상한 바가 있어 감회가 새롭다”며 “동학농민혁명의 역사를 바로 연구하고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와 그 후손을 발굴하는 데 뜻깊게 사용되길 바란다”는 기부의 뜻을 전했다.



## 동학농민혁명 130주년 TV 방송 홍보



1. 전주MBC 방송 <더 체크> 5.4.방영 /사진출처: 전주MBC
2. JTV방송 <시사토크> 5.11.방영 /사진출처: JTV
3. 전주KBS 생방송 <심층토론> 5.14.방영/사진출처: 전주KBS
4. 전주KBS 생방송 <심층토론> 출연진 및 사회자

기념재단은 동학농민혁명 기념일(5월 11일)을 전후로 TV 방송 등을 통해 동학농민혁명 130주년이 갖는 의미를 대외적으로 홍보하였다. 특히 5월 14일에 생방송으로 진행된 전주KBS <심층토론>에서는 신순철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이사장, 정동영 제22대 국회의원 당선인, 주영채 동학농민혁명유족회 이사장이 출연하여 한국 근대사와 세계사에서 동학농민혁명이 차지하는 위상과 그 의미를 살폈다. 아울러 동학농민혁명의 동아시아, 세계사적 위상에 부합한 기념사업과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의 서훈에 대해 적극적인 관심과 성원을 요청하였다.



### 하반기 동학농민혁명 130주년 기념사업

- **동학농민혁명 130주년 기념 국회 특별전시**  
기간: 2024. 8. 12. ~ 8. 16.(5일)  
장소: 국회의원회관 로비
- **동학농민혁명기록물 세계기록유산 등재기념 특별전시**  
기간: 2024. 11.(예정)  
장소: 동학농민혁명기념관 1층
- **국제 학술대회**  
기간: 2024. 9. 11. ~ 9. 12.(1박2일)  
장소: 동학농민혁명기념공원 일원

### 하반기 동학농민혁명 학술대회

- **정읍 유족중년 학술대회** 2024. 7. 11.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교육관
- **인제 동경대전 학술대회** 2024. 8. 19. ~ 8. 20.  
강원도 인제 동국대학교 만해마을
- **동북아재단 공동 학술대회** 2024. 10. 15. ~ 10. 16.  
서울 동북아재단
- **남원문화원 공동 학술대회** 2024. 10. 23.  
춘향문화예술회관
- **고창군 공동 학술대회** 2024. 11. 15.  
고창 고인돌박물관

## ‘동아시아 민주평화인권 네트워크’ 단체 130주년 동학농민혁명기념식 초청



전라감영 선화당 앞에서 기념촬영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은 제130주년 동학농민혁명기념식에 ‘동아시아 민주평화인권 네트워크’ 연대 단체를 초청하여 우리나라 근·현대 민족민주운동사에서 차지하는 동학농민혁명의 역사적 의미와 그 위상을 새롭게 하였다.

제130주년 동학농민혁명기념식에 참석한 단체는 △ 5·18 기념재단, △제주4·3평화재단,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노근리국제평화재단, △부마민주항쟁기념재단, △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 등 6곳이다. 연대기관 대표 및 관계자 20여 명은 1박 2일 (5.10.~5.11.) 일정으로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을 방문하여 세계혁명도시 연대회의, 동학농민혁명 유적지 답사(전봉준 고택, 만석보, 전라감영), 동학농민혁명 130주년 기념 세계서예전북비엔날레 특별전, 130주년 동학농민혁명기념식 등에 참여하였다.

제130주년 동학농민혁명기념식에 참석한 단체는 △ 5·18 기념재단, △제주4·3평화재단,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노근리국제평화재단, △부마민주항쟁기념재단, △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 등 6곳이다. 연대기관 대표 및 관계자 20여 명은 1박 2일 (5.10.~5.11.) 일정으로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을 방문하여 세계혁명도시 연대회의, 동학농민혁명 유적지 답사(전봉준 고택, 만석보, 전라감영), 동학농민혁명 130주년 기념 세계서예전북비엔날레 특별전, 130주년 동학농민혁명기념식 등에 참여하였다.

## 학술지 『동학농민혁명 연구』 제2호 발간



5월 31일 동학농민혁명연구소에서 동학농민혁명 학술지 『동학농민혁명 연구』 제2호를 발간하였다. 지난해 11월 창간호에 이어 두 번째로 발간된 이번 학술지에는 동학농민혁명 관련 특집 논문(3편), 일반 논문(5편), 자료 소개(군산근대박물관 소장 고문서), 연구소 소식, 자료 목록(국역총서, 신국역총서) 등이 수록되었다. 특집 논문은 정읍 만석보 위치 고증과 활용방안 관련 연구 자료이다. 일반 논문은 고부농민봉기, 군산지역 동학농민혁명, 양호도순무영의 설치와 활동, 동학농민군의 대둔산 항쟁 등을 다루었다. 학술지의 내용은 동학농민혁명 사료 아카이브(www.e-donghak.or.kr)와 학술지 자료 검색 사이트(https://www.earticle.net)를 통해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다.

동학농민혁명연구소는 2023년 4월 1일에 개소한 이후 동학농민혁명 관련 자료 조사 및 연구, 학술사업, 국내외 학술교류 등을 수행하고 있다. 동학농민혁명 연구의 질적 향상을 위해 『동학농민혁명 연구』 학술지를 매년 2회 발간하고 있다.

## 동학농민혁명기념관 보수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3개월간 동학농민혁명기념관 및 부속 시설을 보수하였다. 이번 공사는 2004년에 개관한 동학농민혁명기념관의 노후화된 시설을 개선하여 관람객들의 편의를 높이고자 추진하였다. 특히 냉·난방 시설 및 장애인용 승강기 교체, 지붕 보수, 방수 공사, 외관 보강 등이 이루어져 방문객들이 좀 더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한편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은 2011년부터 전북특별자치도와 위수탁 계약을 체결, '전북특별자치도 동학농민혁명기념관'을 운영하고 있다. 기념관은 지하 1층, 지상 2층 건물로 상설 전시실, 기획 전시실, 어린이 전시실, 수장고 등을 갖추고 있다. 부속 시설인 교육관은 대강당, 회의실, 교육실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기봉진의 증손 기경도



일시 2024. 4. 18.(목) 14:00 ~  
장소 광주광역시 서구 기경도님택

이번 호의 유족 인터뷰는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기봉진(奇鳳鎭 1860~1895) 님의 증손 기경도(奇峒度)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참여자 기봉진은 동학농민혁명 당시 곡성군에 거주하면서 동학에 들어가 1892년 봄 수백 호에 달하는 동학 조직을 지도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1894년 동학농민혁명 때는 전봉준 장군이 9월 10일경(음력) 삼례(參禮)로 나아가 대도소(大都所)를 설치하고, 척왜(斥倭) 2차 봉기를 단행했을 때 조재영(趙在英), 오정선(吳正善) 등과 함께 참여하였다. 이후 우금티 전투에서 패배한 후 고향 인근으로 몸을 피했지만 체포되어 참수형(斬首刑)을 당하였다.

**문** 이번 호의 유족 인터뷰에는 참여자 기봉진 님의 증손 기경도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선생님 반갑습니다.

**답** 안녕하세요, 기경도입니다. 저는 전남 곡성에서 태어나 살다가 1960년대 중반에 이사해서 지금까지 광주에서 살고 있습니다. 지난 2020년 5월 11일 정읍 황토현에서 제126주년 동학농민혁명 기념식이 열렸을 때 저의 증조부님 얘기가 영상으로 제작되어 상영되기도 했었지요. 그때까지만 해

도 제가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이나 유족회의 회의나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는데, 근년(近年)에 건강에 문제가 생겨 대외 활동을 자제하고 있습니다.

**문** 네, 유족회 회원분들이 대체로 연로(年老)해서 걱정입니다. 선생님 고향이 행주기씨(幸州奇氏) 집성촌인 곡성군 죽곡면 반송리죠? 동학농민혁명에 참여하신 증조부님도 그곳에서 사셨죠?

**답** 네, 반송리는 우리 집안 대대로 살아온 곳입니다. 현재 주소는 전라남도 곡성군 죽곡면 반송길입니다. 지금은 우리 일가들이 도시로 이사를 나가기도 하고, 타성(他姓) 사람들이 이사를 와서 살지만 제가 어렸을 적에만 해도 반송리에는 행주기씨만 살았습니다. 저도 그곳에서 태어나서 살다가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삼년상(三年喪)을 모신 후에 광주로 이사를 나왔습니다. 그때 제 나이가 열일곱 살이었어요.

**문** 선생님께서 태어난 해가 1948년이죠? 열일곱 살 때였으면 1965년, 아버님 삼년상을 모신 후 이주(移住)했다면 1968년도에 광주로 나오셨겠네요?

**답** 계산을 안 해봐서 정확한 연도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마도 그럴 거예요. 광주로 나온 지 50년이 훌쩍 지났으니까요.

**문** 선생님, 본관(本貫)이 행주(幸州)면 조선시대 때 아주 명문가(名文家)네요? 조선중기(朝鮮中期)에 전남 나주에서 태어난 성리학의 대가(大家) 고봉(高峯) 기대승(奇大升, 1527~1572) 그리고 조선 후기(朝鮮後期) 순창에서 태어나 장성에서 활동한 노사(盧沙) 기정진(奇正鎭, 1798~1879) 이분들과 같은 집안이네요?

**답** 네, 제가 어렸을 적부터 집안 어른들께 고봉 선생님과 노사 선생님 두 분은 대단한 분들이라는 얘기를 아주 귀에 못이 박히게 들었습니다. 고봉 선생님은 퇴계 이황 선생님의 제자인데 스승님과 무려 10년간 편지로 성리학의 핵심 논쟁인 '사단칠정(四端七情)'에 대해 의견을 주고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노사 선생님은 19세기 서양 오랑캐와 왜적의 침략에 맞서 나라를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가르친 아주 훌륭한 분이라고 들었습니다.

**문** 네, 맞습니다. 우리나라 천 원권 지폐 인물화의 주인공인 퇴계 선생님의 제자인 고봉 기대승 선생님은 대단한 성리학자죠. 또한, 성리학의 한 학파를 이룬 노사 기정진 선생님이 성리학의 큰 산이지요. 동학농민혁명에 참여하신 증조부님 출생 연도가 동학이 창도(唱導)된 1860년이니 노사 선생님과 증조부님 두 분이 살아계실 때 만남이 있었을 것 같은데 그 점에 대해 들은 얘기는 없는지요?

**답** 있지요. 있다마다요. 아버지께서 제게 “너의 증조부께서 장성에 계신 노사 선생님을 찾아뵙고 가르침을 받았다. 증조부님과 집안의 동생이 함께 노사 선생님을 찾아뵙고 가르침을 받았다. 증조부님이란 같이 배웠던 그 동생이 나중에 노사 선생님의 손자인 기우만(奇宇萬, 1846~1916) 의병장에게도 가르침을 받았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문** 네, 그렇군요. 증조부께서 노사 선생님과 연계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회학자 신용하(서울대 명예교수) 선생은 『한국 근대사학사상사 연구』라는 저서에서 위정척사사상(衛正斥邪思想), 동학사상(東學思想), 개화사상(開化思想)을 19세기 조선의 3대 사회사상으로 듭니다. 19세기 조선은 대내외적 상황이 복잡했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까닭은 증조부님의 가계와 그 내력을 보면 동학사상보다는 위정척사사상 쪽에 더 가까운데 동학사상을 수용하셨기 때문에 여쭙본 것입니다.

**답** 네, 그렇지요. 조선시대 성리학의 명문가였던 우리 집안의 내력으로는 위정척사사상 쪽이 더 맞지요. 사된 사상을 배척하여 정교(正敎)인 유교의 나라 조선을 지켜나간다는 위정척사사상과 동학 사상은 배척되지요. 더욱이나 조선왕조가 동학을 오랫동안 금했잖아요? 그런데 저의 증조부께서는 1892년 봄에 이미 수백 호에 이르는 동학의 제자들을 가르쳤다고 하니 의아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탐학한 관리들이 나라의 근본인 백성들을 못살게 한다. 이는 나라의 근본을 해치는 것이다. 그렇지만, 아무리 그렇더라도 농민들이 죽창을 들고 일어난 것은 온당한 처사가 아니다.”라고 생각하셨답니다. 그래서 1차 봉기 때 증조부님은 봉기하지 않았답니다. 그런데 1894년 여름에 일본군이 경북공으로 쳐들어가 국왕을 인질로 잡고 국정을 농단하자 이런 일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갓을 벗어두고 죽창 들고 일어섰다고 합니다.

**문** 네, 아버님이 선생님께 해주신 말씀이 지금도 일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증조부께서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로 등록된 것은 선생님 혹은 다른 유족께서 신청서를 제출한 것이 아니지요? 『부구례군교구사』, 『천도교남원군 종리원』 등에 “포덕 삼십이년 임진 춘(春)에 곡성군 기봉진 씨의 전도로 허탁, 임양순, 임태순, 조경목, 우공정 제씨가 섰도되야 포덕이 수백 호에 달하였다.” 라는 기록과 『천도교백년약사』(천도교중앙총부교사편찬위원회, 1981, 245쪽)에 “그리하여 전봉준은 (1894년) 9월… 일제히 봉기할 것을 호소하고 태인을 떠나 삼례(參禮)에 대도소(大都所)를 정하였는데… 이때 호남 각지에서 기포한 중요 인물은 다음과 같다… 곡성의 조재영, 기봉진, 오정산…” 이런 기록

**문** 네, 증조부께서 가르침을 받은 노사 선생님은 1866년 병인양요(丙寅洋擾) 때 척화주전론(斥和主戰論)을 골자로 상소를 올립니다. 그 상소가 ‘병인 의소(丙寅擬疏)인데 위정척사사상의 본원(本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19세기 당시 동학사상, 위정척사사상, 개화사상이 서로 엇갈리는가 하면 서로 부합한 측면이 있습니다. 척양척왜(斥洋斥倭), 보국안민(輔國安民)이라는 동학농민군의 기치가 위정척사와 혹은 개화파와 반대되거나 지향점이 같기도 합니다. 다시 말하면 동학사상과 위정척사사상은 왕조 개혁에서는 서로 반대지만 외세 배척에서는 서로 뜻이 같습니다. 그런가 하면 동학사상과 개화사상은 외세 배척에는 반대지만 왕조 개혁에서는 서로 뜻이 같습니다. 이렇게 서로 엇갈린 당시 사회 사상을 찬찬히 살펴보면 증조부께서 동학에 들어간 연유를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답** 맞습니다. 제가 어릴 때부터 들은 얘기도 방금 선생님이 말씀하신 맥락과 같아요. 증조부께서는 동학사상을 가르쳤지만 1차 봉기 때는 일어서지 않았답니다. 아버님 말씀에 따르면 증조부께서는 “천지인(天地人), 하늘과 땅과 사람이 세상의 기본이고, 사람은 곧 나라의 근본이다. 그런데

들이 확인되어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심의위원회에서 직권으로 등록을 한 것이지요?

**답** 네, 맞습니다. 신청서를 내서 등록된 것이 아닙니다. 그때가 언제였던가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동학농민혁명을 연구한다는 분들이 찾아와서 이것저것 묻고 갔습니다. 그분들이 조사할 때 하신 얘기에 따르면 증조부께서는 상당히 일찍 동학에 들어갔답니다. 그분들에게 제가 아버지께 들은 얘기를 많이 해줬습니다. 하여간 전문가들이 조사하러 왔을 때 여러 가지 들은 얘기를 자세하게 해주었어요. 그리고 나서 시간이 한참 흐른 뒤에 증조부님이 참여자로 등록이 되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문** 앞서 말씀드렸던 기록에 따르면 증조부께서 1892년(임진년) 봄에 곡성과 구례 등지에 수백 호에 이르는 동학 조직을 지도하셨다고 하는데, 증조부께서 언제, 어떤 경로로 동학에 들어가셨는지 들은 얘기는 없는지요?

**답** 예, 그런 얘기는 못 들었습니다. 다만 아버지께서 “너의 증조부께서 남원에 가셨다가 어떤 도인을 만나 동학의 도를 받으셨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제가 어렸을 때 어머니께서 “너의 증조부님은 곡성군 오지리, 승법리는 물론이고, 섬진강 건너 구례 등지에 다니면서 사람들에게 동학을 가르쳤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증조부님이 집에 계시는 때는 많은 사람이 집으로 많이 찾아왔다고도 하셨어요.

**문** 호남에 동학이 전파된 것은 크게 두 줄기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수운 최제우 선생이 1860년 4월 동학을 창도하자 경주 용담으로 사람들이 찾아왔고, 이를 수상히 여겨 경주 관아에서 관원을 시켜 감시했습니다. 그러자 수운 선생은 1861년 가을에 배를 타고 전남 여수로 건너옵니다. 이어서 여수에서 승주(지금의 순천)와 구례를 거쳐 남원으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해 12월 그믐날 남원 교룡산의 은적암으로 들어가서 동학의 주요 경전들을 집필합니다. 이 무렵 임실, 전주 등지에 동학이 전파됩니다. 둘째는 1884년 6월 동학 2대 교주 최시형 선생이 익산으로 내려와 금마의 사자암(獅子庵)에서 4개월을 머물면서 동학을 전파합니다. 이렇듯 남원에는 아주 이른 시기에 동학이 전파됩니다. 이런 맥락에서 “증조부께서 남원에 가셨다가 도인을 만나 동학에 들어가신 것 같다.”라는 내용은 아주 일리가 있습니다. 혹여 어머니께서 증조부님이 대접주었다거나 뭐 그런 유사한 말씀은 안 하셨는지요?

**답** 접주었는지 대접주었는지 그런 얘기는 듣지 못했어요. 그 대신 ‘동학장군’이었다고 얘기하셨어요. 곡성에서 섬진강 건너편 동북쪽으로 구례가 있고,



곡성 관아 터(현 곡성군청 자리) 전라남도 곡성군 곡성읍 군청로 50 동학농민군이 전주성 공략을 위해 세를 확장하던 때 (음력 4. 19.)에 동학농민군 수천 명이 곡성 관아를 점령하였다.



동학혁명 의병장 기봉진 장군 기념비 앞에서 증손 기경도 님과 가족들

구례 위쪽이 남원이잖아요? 그리고 서북쪽에 옥과와 순창이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고을에 돌아다니며 동학을 포교했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문** 네, 증조부께서는 대접주었던 것 같아요. 동학의 조직 체계를 살펴보면, 처음 접제(接制)가 마련된 때는 1862년 말이었습니다. 이때 접은 대체로 50호 내외였고, 이는 2대 교주 해월 최시형이 경상도와 강원도 산간으로 숨어 다니면서 포교할 때까지 유지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충청도와 전라도로 동학 교세가 확대된 1880년 중반에 1백 호 혹은 2백 호 이런 큰 조직들이 생기면서 포(包)라는 조직 체계가 생겨났습니다. 포의 지도자를 대접주(大接主)라고 불렀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아마도 증조부께서 대접주었던 것 같습니다. 참, 선생님께서 2018년 봄에 반송리 앞에 증조부님 기념비를 세우셨지요? 그 기념비를 건립하게 된 경위를 말씀해 주십시오.

**답** 저의 생질(甥姪), 그러니까 저의 둘째 누님 아들 심성식이라고 있어요. 전남대학교를 졸업하고, 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광주교육연수원장까지 지냈어요. 그 조카가 동학농민혁명 특별법도 제정

되었으니까 이제 증조부님은 반란군 아니다, 아주 자랑스러운 일을 하신 분이다. 그러니 그분을 기리는 비라도 세워야 한다면서 곡성문화원 등에서 여러 자료를 가져왔어요. 그래서 2018년에 반송마을 앞에 '동학혁명 의병장 기봉진 장군 기념비'를 세웠지요. 사실 말이지 예전에는 집안에서 동학농민혁명에 참여한 것을 내놓고 말하지 못했어요. 그 반대였지요. 반란에 가담한 것으로 생각했으니까요. 더욱이나 우리 집안에서는 증조부님 생전의 행적에 대해 감추려는 분위기가 강했으니까요. 그러다가 2004년 특별법이 제정되고, 국가 기념일까지 제정되어 달력에도 나오고, 정부에서 매년 기념식까지 개최하니까 사정이 달라졌답니다. 그래서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문** 네, 너무 많이 늦었지만 그래도 참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증조부께서 우금티 전투에서 패배한 후 주력군과 함께 후퇴를 거듭하다가 1894년 11월 25일 원평 구미란 전투, 11월 27일 태인 전투에서도 패하여 고향으로 내려오다가 체포되어 처형되었지요?

**답** 아버지 말씀에 따르면 증조부님을 스승님, 스승님 하면서 따랐던 제자가 은신처를 밀고하는 바람에 체포되었답니다. 공주 우금티에서 일본군에게 크게 패한 후 후퇴하면서도 계속 싸웠대요. 그렇게 해서 고향 쪽으로 내려왔는데, 집으로 곧장 들어오면 잡힐 게 뻔하니까 고향인 반송리로 들어오지 않고 오곡면 승법리와 침곡리 사이 산자락에 은신처를 마련하고 있다가 체포되었다고 합니다. 체포된 증조부님은 사흘간이나 나무에 매달린 채 잔인한 고문을 당했대요. 그래도 증조부께서 한치

도 뜻을 굽히지 않자 1895년 2월 3일(음) 일본군이 참형(斬刑), 목을 베었다고 합니다. 그 소식을 듣고 증조모님이 달려가서 잘린 머리를 차마쪽에 감싸고 30리를 단숨에 걸어 고향으로 돌아왔답니다. 나머지 목 없는 시신은 증조부님의 삼 형제가 수습했답니다. 그렇게 고향 마을로 시신을 모셔 왔는데 문중 분위기가 워낙에 완고하고, 싸늘하여 선산의 증조부님 자기 자리에 묻지 못하고, 선산은 선산인데 아주 구석진 한쪽 구석에 묻었답니다. 나중에 제 아버지께서 돌아가신 이듬해(1966)에서야 문중에서 회의를 열어 증조부님 묘를 증조부님의 아버지, 그러니까 저의 고조부님 묘소 아래 원래 당신이 있어야 할 자리로 옮겨 모셨습니다.

**문** 증조부께서 동학농민혁명에 참여한 사실 때문에 후손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었죠? 특히 일제강점기 때 선생님 집안의 사람이 돈벌이를 위해 일본으로 출국하려다가 거부당하기도 했다고 들었습니다. 후손들이 겪은 어려움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답** 일제 강점기 때 곡성군 같은 마을에 살았던 일곱 명이 일본으로 돈을 벌기 위해 나가려고 했었답니다. 그때 참여자 기봉진의 손자도 일본으로 나가려다가 동학 괴수의 손자라고 출국이 거부되었다고 합니다. 사실 더 큰 고통은 정통 유림을 자처하는 우리 문중에서조차 증조부님을 반란군으로 치부하였으나... 그 설움과 고통이야 어찌 말로 다할 수 있나요. 그런데 지금은 침략자 일본을 몰아내기 위해 일어난 혁명으로 평가하고, 참여자분들의 명예를 회복시켜 주니까 정말 감회가 새롭습니다. 이제는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문** 네, 선생님. 2004년 특별법, 2019년 기념일이 제정되었습니다. 나아가 지난해에 동학농민혁명기록물이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되었습니다.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된 기록물 85건 중에는 증조부님의 활동상이 기록된 『남원군종리원사』 등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도 선생님께서 감회가 남다를 것 같습니다. 마무리 말씀 겸하여 흑여 빠뜨린 얘기가 있으면 해주십시오.



기경도 님과 부인

**답** 2019년에 동학농민군이 대승을 거둔 황토현 전승일 5월 11일이 국가 기념일로 제정되어 매년 정부가 기념식을 성대하게 거행합니다. 고마운 일입니다. 그 행사를 준비해서 진행하는 기념재단에도 더없이 감사드립니다. 올해는 동학농민혁명 130주년이지요. 기념일 하루만이라도 모든 국민이 동학농민혁명의 의미를 가슴 깊이 새겼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렇게 멀리 찾아와서 긴 시간 동안 경청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문** 네, 선생님, 긴 시간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내내 건강하십시오.

## 제3회 세계혁명도시 연대회의 근대혁명 도시들의 기억과 연대 : 혁명과 평화



세계혁명도시 연대선언문 낭독 이학수(정읍시장)



축하공연 정읍시립국악단



전봉준 장군과 동학농민군상 앞에서 헌화와 묵념



개회사 이학수(정읍시장)



환영사 신순철(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이사장)



기조강연 마틴 게바라 두아르떼(작가, 체 게바라 조카)



발표 앤 도허티(코크시의회 수석 사무총장)

2024년 5월 9(목)일부터 11(토)일까지 동학농민혁명기념공원 일원에서 제3회 세계혁명도시 연대회의가 열렸다. 정읍시 주최·주관, 문화체육관광부·전북특별자치도 후원으로 열린 이번 연대회의의 주제는 ‘혁명과 평화’이다. 혁명 정신을 현재적 가치로 전환하여 오늘날 전쟁, 환경 파괴, 불평등 등 당면한 위기를 살펴보고 극복 방안을 모색하였다. 참여한 도시는 △대한민국 정읍을 비롯하여 △체 게바라의 고택이 있는 아르헨티나 알타그라시아, △아일랜드 독립투쟁의 중심 코크, △독일농민전쟁의 발상지 뮐하우젠, △필리핀의 독립운동가 호세 리잘의 고향 칼림바 등 5개 지역이다.

개회식에는 이학수(정읍시장), 고경윤(정읍시의회 의장), 신순철(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이사장), 마틴 게바라 두아르떼(작가), 마르코스 토레스(아르헨티나 알타그라시아 시장), 키아란 존 맥커티(아일랜드 코크 시장), 수잔 키미 뵐크너(독일 뮐하우젠 박물관 관장), 레네 에스칼란테(필리핀 드라살대학교 역사학과 교수) 등을 비롯하여 연구자, 기념단체 관계자, 지역 주민 등 300여 명이 참석하였다. 이학수 정읍시장은 연대선언문에서 “사람이 하늘이 다라는 동학농민혁명 정신이 130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에게 깊은 울림을 주고 있다”며 “비록 나라와 도시가 다르지만, 다시 사람이 하늘이 되는 세상, 전쟁과 탐욕이 없는 평화로운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자.”고 말했다.

**기조강연** 「평화와 생태회복을 위한 새로운 혁명」 마틴 게바라 두아르떼(작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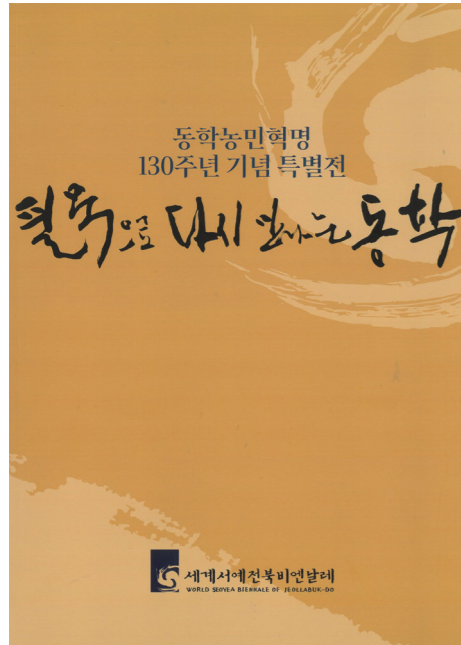
**주제발표: 근대혁명의 현대적 의미**

- 「동학농민혁명과 공동체 정신」 조성환(원광대 한중관계연구원 교수)
- 「코크의 혁명기간, 1913-1923」 다니엘 브린(코크시립박물관 큐레이터), 앤 도허티(코크시의회 수석 사무총장)
- 「필리핀의 농민혁명: 필리핀 칼림바와 호세 리잘」 레네 에스칼란테(필리핀 드라살대학교 역사학과 교수)
- 「2025 독일농민전쟁 500주년 기념 계획」 수잔 키미그 뵐크너(독일 뮐하우젠박물관 관장)



# 세계서예전북비엔날레 동학농민혁명 130주년 기념 특별전

## 필묵으로 다시 만나는 동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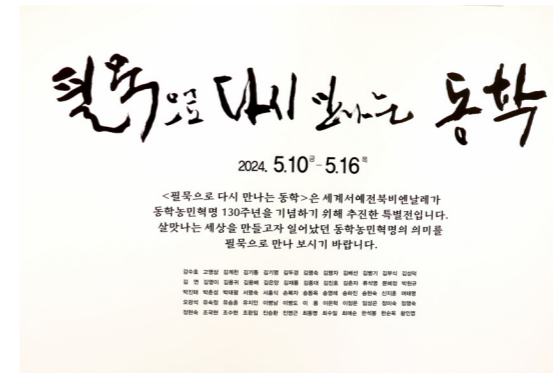
동학농민혁명 130주년을 기념하여 '필묵으로 다시 만나는 동학'을 주제로 서예 특별전이 지난 5월 10일부터 16일까지 전북특별자치도 예술회관에서 열렸다. 전북특별자치도 주관, 세계서예전북비엔날레 주최,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후원으로 열린 특별전은 동학농민혁명의 역사와 정신을 필묵으로 승화시키고 재해석한 전통 서예 작품과 시(詩)·서(書)·화(畫)가 융합된 창작 서예 작품 등 총 60점이 전시되었다.

특별전 첫날 열린 개회식에는 송하진 세계서예전북비엔날레 조직위원장과 최병관 전북특별자치도 행정부지사, 신순철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이사장, 박춘성 원로 서예가, 제주 4·3평화재단, 노근리국제평화재단, 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 등 민주평화인권 관련 단체 대표와 관계자 등 150여 명이 참석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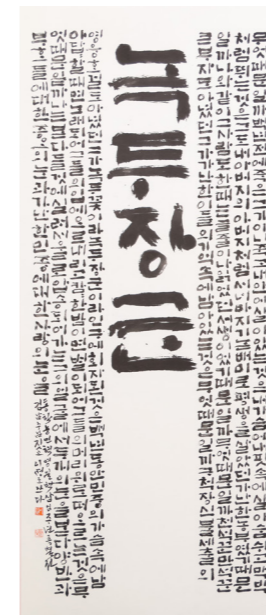
송하진 조직위원장은 “동학농민혁명은 살맛 나는 세상을 만들고자 했던 희망의 역사이다. 민주 의식과 평등 사상을 일깨우고 길러준 동학농민혁명을 소재로 한 서예 전시는 서예 문화진흥에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며 그 의미를 설명하였다.



내빈들이 '동학농민혁명 필묵으로 꽃 피우다'를 한 글자씩 쓴 후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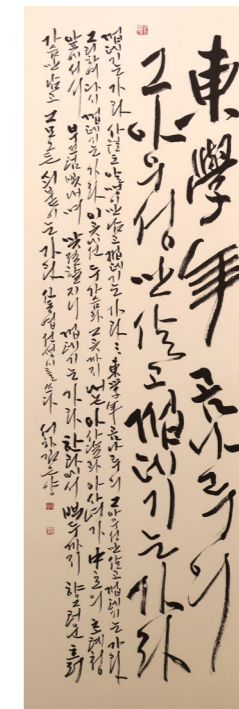
동학농민혁명 130주년 기념 특별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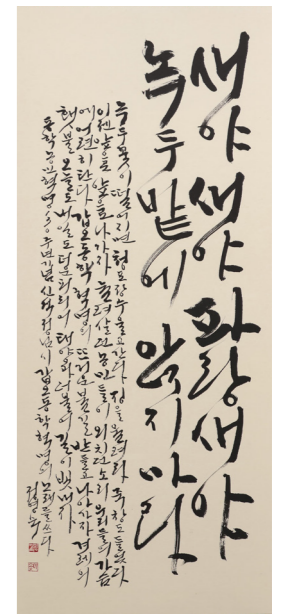
「녹두장군」 이병도



「들과 낮과 창과」 정미숙



「갯데기는 가라」 김은양



「새야 새야 파랑새야」 정영숙

동학농민혁명 130주년 기념 웹툰 공모전 대상 수상

「향아설위」 이지현 작가 전주대학교 웹툰 만화콘텐츠학과 교수

● 안녕하세요. 작가님, 만화가로서 한 길을 오롯이 가는 일이 녹록지 않았을 텐데요. 어떻게 만화와 인연을 맺게 되었는지 궁금합니다.

● 1980년대 중반부터 깊이 있는 예술 만화가 각광을 받으면서 세상의 다양한 모습을 이미지로 표현할 수 있는 만화에 큰 매력을 느꼈습니다. 그림을 배운 적도 없고 실력이 좋은 편도 아니었지만, 만화가가 되겠다는 목표를 세운 후 한 번도 다른 방향을 바라본 일이 없는 것 같아요. 1990년대 학보 만평을 그린 것을 시작으로 지역 시사 만화가를 거쳐 10여 년간 학습지 전문 삽화가로 일했어요. 2004년에 육아 만화를 연재하면서 웹툰 1세대로 데뷔해서 다수의 공모전에서 수상하였고 지금까지 줄곧 만화가로서 길을 걷고 있습니다.

● 이번 동학농민혁명 130주년 기념 웹툰 공모전 대상 수상작 제목이 「향아설위」입니다. 대중들에게는 좀 낯선 말인데요. 어떤 의미인지요?

● 「향아설위(向我設位)」는 해월 최시형 선생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제사를 지낼 때 살아있는 사람, 즉 자기 자신을 향해 위패를 두고 제사를 지내라는 뜻입니다. 제사 지내는 사람이 곧 하늘이며 과거, 현재, 미래가 지금, 여기, 내 안에 있다는 이치를 담고 있습니다.

저는 「향아설위」를 「자신이 옳다고 믿는 바를 실천하는 것이 하늘의 명을 따르는 것」이라고 해석했고 「옳다」라는 개념의 기준은 「얼마나 많은 사람을 이롭게 하는가」로 삼았습니다. 「나와 남이 본래 같은 하늘이니 보다 많은 나를 이롭게 하는 것이 옳은 것」이라는 동양적 사상을 함축한 제목입니다.

작품명이 대중들에게 낯설게 느껴질 수 있을 것 같아 고민했지만, 문화 매체의 역할 중 하나는 낯선 것을 낯설지 않게 만드는 것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향아설위(向我設位)」 제목을 그대로 쓰고 나 자신부터 귀히 여기라는 뜻을 강조하여 「나에게 바치다」 부제를 붙였습니다.

● 작품 인물과 스토리 구성은 어떻게 구상하였는지요?

● 2021년 황토현 시문학상에 입상하면서 언젠가 그 시의 화자였던 여자 주인공을 만화로 그려보고 싶다고 생각했습니다. 목숨을 걸고 전투에 나선 투사들의 이야기는 많지만 살아남은 가족들은 어떤 마음으로 가족을 보내고 살아갔는지 궁금했습니다.

이후 동학농민혁명 관련 책을 읽고 영상을 보며 아이디어를 구체화했습니다. 여자 주인공 '향아'는 수운의 경전을 지키는 심시정의 며느리가 됩니다. 향아의 남편 '경인'은 유약한 선비지만 양심의 부름을 따라 공주 우금치 전투에 나서고 남편을 잃은 향아는 남은 가족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건 결단을 하게 됩니다.



● 「향아설위」 작품에서 작가님이 가장 좋아하는 장면을 꼽는다면 어떤 부분인지요?

● 남자 주인공이 전사할 때 “내가 지어 나에게 바치는 삶”이라는 대사가 나오는데 그 장면에서 눈물이 났다는 독자들이 계셨습니다. 이 대사는 「향아설위」 제목과도 같은 의미입니다. 「향아설위」를 한글로 풀면 「나에게 베풀다」가 되는데 저는 삶 자체를 나 자신에게 베푸는 이야기, 혹은 희로애락을 경험하는 놀이동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여자 주인공이 “희망을 품은 자가 희망의 씨앗입니다.”라는 독백을 하는데 미래에 대한 긍정적 기대를 잃은 분들께 꼭 전하고 싶은 말이었습니다. 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세상에 대한 애정과 희망을 품고 삶을 향해하려는 의지, 저는 그게 운명의 참뜻이라고 생각합니다. 운명의 운(運)은 옮긴다, 움직인다는 뜻이 있기 때문입니다.

● 1894년 모든 사람이 하늘인 세상을 염원하며 일어났던 동학농민혁명은 올해로 130주년이 되었습니다. 작가님은 동학농민혁명에 남다른 애정을 갖고 계시는데 동학농민혁명 130주년을 맞는 느낌도 남다를 것 같습니다.

● 1994년, 동학농민혁명 100주년이 되던 해에 만화가 선생님들과 함께 정읍 황토현 답사를 온 일이 있습니다. 30년 전 붉은 진흙만 펼쳐져 있던 황토현에 동학농민혁명기념공원이 세워진 것을 보고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수많은 참여자가 희생되었고 오랫동안 외면받았던 동학농민혁명이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등재되면서 한국 역사에서 민주주의를 태동하게 한 ‘혁명’임을 공인받는 변화가 있었습니다.

저는 대중문화 예술인이기 때문에 문화적 관점에서 동학농민혁명이 갖는 가치에도 관심이 많습니다. 현재 세계 문화의 변화, 그 중심에 K팝이 있습니다. 한국 대중문화의 향유자들은 자발적으로 예술 상품의 생산과 발전에 이바지하는 한편 적극적으로 자신들의 의견을 전달하는 참여형 팬덤 문화까지 수출하고 있습니다. 저는 한 사람 한 사람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는 「동학농민혁명 정신」에서 문화 강국을 만든 원동력을 찾아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기억하고 기념해야 할 역사와 대중들이 사랑하는 문화 콘텐츠가 결합하여 모두가 하늘인 동학농민혁명의 인본주의 정신이 새로운 시대의 사상으로 자리매김하길 소망하고 있습니다.

● 한국을 넘어 세계사적으로 인정받았음에도 아직도 많은 사람이 동학농민혁명에 대한 이해와 자부심이 다소 낮은 부분이 있는 게 아쉽습니다.

● 동학농민혁명과 관련된 성공적인 콘텐츠가 발굴된다면 대중의 이해와 인식이 저절로 높아지리라 생각합니다. 이번 동학농민혁명 웹툰 공모전도 좋은 예입니다. 이러한 공모전이 정기적으로 개최되면 동학농민혁명을 공부하고 관련 콘텐츠를 준비하는 창작자가 꾸준히 양성될 것입니다.

또 전북특별자치도는 물론 전국 각 지역의 동학농민혁명 콘텐츠 발굴 및 여행 루트를 개발하는 사업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정읍, 고창, 전주처럼 대표적인 동학농민혁명 전적지뿐 아니라 곳곳에 숨겨진 콘텐츠를 발굴하여 연결하면 한국의 특징이라 할 수 있는 대중 참여형 민주주의의 뿌리가 동학농민혁명을 국내외 관광객에게 알릴 수 있을 것입니다.

● 웹툰 작가로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수로서 향후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요?

● 웹툰 작가는 굳이 수도권에서 작업해야 할 필요가 없



전주대학교 강의실에서

는 직업입니다. 스마트 폰을 사용하면서 성장한 알파 세대는 텍스트보다는 이미지에 익숙하고 대부분 도시에서 생활합니다. 매체에서 흔히 접하는 수도권 생활상과 조금 다른 지역의 모습을 웹툰으로 재조명하면 독자들이 다른 각도에서 세상을 바라보는 즐거움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전북은 음식, 국악, 생태 환경, 지역 축제 등 일상과 환상을 오가는 콘텐츠가 아주 많이 숨어있는 지역입니다. 앞으로 학생들과 함께 다양한 이야기를 발굴하면서 전북 지역에 깊이 밴 동학농민혁명 정신을 만화에 담아 펼쳐 나가고 싶습니다.



작품 「향아설위」는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홈페이지(www.1894.or.kr)와 블로그에서 볼 수 있습니다.

### 작가와 동학농민혁명

이지현 작가가 중고등학교를 다니던 1980년대는 거리에 최루탄 냄새가 진동하고 청년들이 민주주의를 위해 목숨을 바치는 시대였다. 그런 사회적 흐름 속에서 동학농민혁명의 가치가 주목을 받았고, 이지현 작가 역시 이 무렵에 동학농민혁명을 만화로 그려야겠다는 뜻을 세우고 사학과를 선택했다. 하지만 역사를 만화로 그리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어서 만화가가 되고 나서도 좀처럼 손댈 엄두를 내지 못했다. 그러던 차에 동학농민혁명 웹툰 공모전 공고를 보게되었고, 곧바로 작업에 들어간 작품이 대상을 수상하게 되었다.

동학농민혁명 관련 책, 자료, 영상 등을 찾아 공부하면서 스토리를 구성했고 스토리 구성에 두 달, 웹툰 290컷을 그리는 데 한 달 이렇게 작품을 완성하는데 꼬박 세 달이 걸렸다고 한다. 작품 「향아설위」는 동학의 2대 교주 해월 최시형의 사상을 기반으로 하여 한 가족이 각자의 마음속에 하늘을 기르는 과정을 그리고 있다. 작가는 작품에서 19세기 말 청년들은 어떤 세상을 꿈꾸며 어떻게 살고자 했는지 되짚어봄으로써 개인주의와 물질주의로 혼란을 겪고 있는 지금, 우리의 미래를 어떤 방향으로 열어가야 하는지를 독자와 함께 고민하고자 했다.

이 작가는 향후 이번 웹툰 공모전 당선작인 「향아설위」를 어린이도 흥미롭게 볼 수 있는 장면 웹툰으로 리메이크할 계획이다. 역사적 사실을 바탕으로 호소력 있는 웹툰 작품을 제작하여 '모두가 하늘인 동학농민혁명의 정신'을 대중들에게 널리 알리는 데 힘을 보탬 예정이다.

### ● 인권과 평화 ①

## 대둔산 벼랑 위에 선 동학농민군

동학농민혁명 마지막 항전지 기행(2024년 3월 13일)

신병규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기념관운영부장



대둔산(전북 완주군 산북리)

### 동학농민혁명의 끝

대중이 '동학'으로 통칭하는 동학농민혁명은 어두웠던 대한민국 근대사를 밝힌 불꽃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왜곡되고 숨겨진 채 100년 이상을 지나왔다. 동학농민혁명이 제 이름을 찾고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뿌리로 인식되기 시작한 것은 채 30년도 되지 않았다. 그 30년 동안 작고하신 이이화, 한승헌 같은 분들과 전국의 동학농민혁명 연구자, 기념사업 단체 활동가들이 노력한 결과 2004년에는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명예 회복법(약칭)"이 만들어지고, 2019년에는 동학농민혁명 국가기념일이 제정될 수 있었다. 이와 더불어 법률에 따라 문체부 특수법인으로 세워진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이 2010년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기념사업을 해 왔지만, 우리 사회의 동학농민혁명에 대한 인식은 아직 '고부 군수 조병갑'과 '녹두장군 전봉준'을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 사람들에게 동학농민혁명이 어디서 어떻게 끝났는지 아느냐 물으면 열에 아홉은 대답을 머뭇거리린다.

동학농민군 총관령 김개남이 전주(1895년 1월 8일)에서 목이 잘리고 녹두장군 전봉준이 종로에서 사형(1895년 3월 30일)을 당한 이후, 거의 30만 명에 달했다는 동학농민군 중에 살아남은 이들은 얼마나 될까? 그리고 그들은 어디로 갔을까?

... 동학농민혁명 당시 최대 전투였던 공주 우금치 전투 이후 전라도로 후퇴한 동학농민군을 포함한 고산, 진산 일대의 접주 이상의 동학농민군들은 대둔산 정상 부근으로 모여들었다. 초막 3개 동을 구축하고 관군과 민보군, 일본군과 대치하였다. 결국, 1895년 1월 24일(양력 2월 18일) 관군과 일본군의 공격으로 소년 1명을 제외한 25명의 동학농민군이 관군과 일본군의 총에 맞아 장렬한 최후를 맞이하였다. 이 중에는 임산부도 있었으며, 접주 김석순은 일본군에 항복하지 않고 한 살쭉 되는 여자아이를 끌어안고 150m 되는 절벽으로 뛰어내려 최후를 맞이하였다.(후략)

— 이병규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연구조사 부장 [전북일보](2015. 1. 9.) 기고문 중에서

서울로 향하던 동학농민군의 주력부대가 우금치에서 일본군에 의해 무너지고, 사방으로 흩어진 농민군들은 전라도 장흥에서 총복 보은에서 또 전국 각지에서 죽임을 당했다. 특히 여기 대둔산은 여러 문서에서 동학농민군의 마지막 항전지로 기록하고 있는 곳인데, 연구자들을 제외하고 그 내막에 대해 아는 사람은 많지 않다.

지금으로부터 25년 전인 1999년 어느 날, 역사학자인 신순철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이사장(전 원광대 사학과 교수)과 이병규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연구조사 부장은 문헌으로만 확인한 대둔산 동학농민군 최후 항전지를 찾아보기로 마음먹고 조사단을 꾸려 대둔산으로 왔다고 한다. 그들은 대둔산 형제바위 근처를 맴돌며 찾아 헤맨 끝에 동학농민군들이 3개월간 항전을 벌였다는 절벽 위 역사의 현장을 찾아냈고, 탄피 등을 수습하여 동학농민군 마지막 항전지의 실체를 세간에 밝힐 수 있게 되었다고 한다.

### 동학농민군을 따라 대둔산으로

동학농민혁명 130주년이 되는 올해 초,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에서는 대둔산 최후 항전지 답사를 계획하였다. 최근 완주군을 중심으로 대둔산 항전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JTV 전주방송과 우리 기념재단이 대둔산 최후 항전지를 답사하며 그 과정을 촬영하기로 한 것이다.

기념재단 답사팀의 길라잡이는 대둔산 항전지 최초 확인자인 신순철, 이병규 두 분이 맡아 주시기로 하고, 2024년 3월 13일 오전 9:30까지 대둔산호텔 주차장에 집결하기로 했다. 우리 목적지가 대둔산 정상 높이까지 올라가야 하는 상황이라 전체 인원을 둘로 나눠 코스도 두 갈래로 잡았다. 한 무리는 신순철 이사장님이 이끌고, 또 한 무리는 이병규 연구조사 부장이 이끌기로 한 것이다.

우리 팀은 JTV 촬영팀 3명, 나와 이병규 부장을 포함한 재단 직원 7명으로 총 10명이었는데 케이블카를 타고 올라가 능선을 오르내리며 유적지를 찾아가기로 했다. 다들 평소 운동을 하지 않고 사는 사람들인지라 길 없는 산비탈을 몇 번씩 오르내려야 한다니 지레 겁먹고 우는 소리를 했다. 하지만 130년 전에 쫓기고 쫓겨서 할 수 없이 이 계곡을 건너고 산비탈을 올라갔을 이들을 생각하면 함부로 투덜거리기도 민망했다. 중간중간 길이 없는 곳이 나올 때마다 이병규 부장이 방향을 짚어줘서 그나마 헤매지 않고 항전지를 숨겨 품은 절벽 앞에 다다를 수 있었다. 시간은 케이블카에서 내리고 난 뒤 1시간 반 가까이 지나 있었다.



동학농민군 대둔산 항전지가 있는 절벽

“항전지는 이 절벽 너머에 있습니다.” 이병규 부장의 안내를 듣고, 이곳을 마지막 항전지로 삼겠다고 처음 생각한 이는 누구였을지 궁금했다. 처음 이곳에 도착한 이들 중 누군가는 나처럼 이렇게 암벽을 타고 올라갔을지 모른다. 하늘로 날아오르는 방법 외에는 더 도망갈 곳이 없는 막다른 곳에 이르러 동학농민군들은 어떤 내일을 상상했을까 하는 생각도 스쳐 지나갔다.

### 바람이 되어 날아간 사람들

농민군이 머물렀던 자리는 생각보다 넓었다. 절벽 위 편평한 공간 안쪽에 고인돌처럼 놓인 큰 바위가 있고, 그 아래로 몇 명은 들어갈 만한 공간이 있어 이곳이 주둔지의 중심이려나 싶은 생각이 들었다.

일행이 항전지를 둘러보며 숨을 돌리고 있을 때 멀리서 우리를 부르는 소리가 들렸다. 신순철 이사장님 일행도 건너편 정상에 도착한 것이다. 부르는 쪽 가장자리로 가니 벼랑 끝에 농민군이 쌓은 것으로 보이는 돌무더기가 경계석처럼 낮게 이어져 있었다. 아래를 내려보다 아찔해서 나무에 기대앉았다. 허공 너머 건너편까지는 어렵 짐작해서 직선거리로 150m 정도 되려나 싶은 거리다. 농민군이 이곳에 결사항전의 자세로 버티고 있을 때 관군이, 일본군이 저 건너편 정상으로 올라와 이쪽을 향해 항복을 종용하기도 하고 총으로 공격하기도 했다고 한다.

이사장님 일행이 이쪽으로 넘어와 합류하기를 기다리며 우리는 방송에 나갈 인터뷰를 촬영했다. 내 차례가 왔을 때, PD가 질문했다. “여기에 오겠다고 마음먹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130년 전에 여기 계셨던 분들이 어떤 심정이었는지 그 마음을 더듬어보기 위해 올라왔습니다.” 나는 이렇게 대답했다. 사무실에 앉아 책을 보면서도 생각하기 어려운, 그들이 서 있던 자리에 섰을 때 비로소 실감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여기 오면 알 수 있을 것 같았다. 막상 올라와서 보니, 백척간두에 서더라도 꿈꾸던 세상을 포기하지 말자고 다짐했던 사람들이 더듬어지고, 동학농민군이 라면 마지막 한 사람까지 잡아 죽이겠다고 쫓아 올라온 저쪽 사람들도 어른어른 상상이 된다.

지금이야 이쪽저쪽 서로 반갑게 손 흔들었지만, 130년 전 그때는 저 봉우리에서 이 봉우리로 험한 말이 날아왔을 것이고, 총탄이 날아왔을 것이다. 한겨울 눈보라처럼 차디찬 적개심과 협박이 농민군들을 극한으로 몰아붙였을 것이다. 더이상 물러설 곳 없이 내몰린 그들의 심정을 나는 차마 상상도 하기 어렵다. 벼랑 끝에 서서도 꿈을 버릴 수 없었던, 의지를 지키고 싶었던 마지막 농민군들은 결국 여기서 바람이 되어 날아오를 수밖에 없었으리라.

### 동학농민혁명, 아직 끝나지 않은

동학농민군의 마지막 항전은 여기 대둔산, 해발 700m 공중에서 끝났지만, 그렇다고 동학농민혁명이 끝나버린 건 아니다. 근대식 무기로 무장한 일본군은 동학농민군과 싸워 이기고 결국 조선의 상투를 잡아 흔들었다. 그리고 한반도를 전진기지 삼아 전선을 넓혀 아시아 전체를 전장으로 만들었고 헛되고 물염치한 망상을 좇느라 수많은 사람을 죽음으로 몰아넣었다. 그런 상황에서도 동학농민혁명의 후예들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저항했으며, 일제 강점기에도 어린이 인권운동, 여성 인권운동, 독립운동으로 그 정신을 이어 나갔다. 그리하여 끝내 대한민국이라는 독립된 국가를 이뤄냈고, 오늘날 이 나라를 세계가 손꼽는 선진국의 대열에 합류하도록 만들었다.

그리고 보면 백성들은 3·1운동으로 4·19혁명으로 5월 광주로, 나라가 필요할 때마다 몇 번이고 다시 봉기하였으니 동학농민혁명은 갑오년에 그냥 끝나버린 것이 아니었다. 불의한 것들에 저항하지 않고서는 도저히 못 배기게 만드는 강력한 혁명의 DNA, 어쩌면 이것이야말로



동학농민군 대둔산 항전지에서 희생자를 기리며

동학농민혁명이 우리 후손들의 핏줄에 심어준 위대한 유산이 아닐까 생각한다.

하산 중에 신순철 이사장님은 조만간 도청, 완주군과 협의하여 대둔산 동학농민군 마지막 항전지 정비 사업을 해야 한다고 말씀하셨다. 가는 길이 위험해서 항전지까지 탐방로를 연결할 수는 없겠지만, 바로 저곳이 마지막 항전지이고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걸 후세가 알 수 있도록 안내판을 세워야 한다는 의견이다. 정상으로 가는 등산로 중간, 항전지가 가장 잘 보이는 곳에 표지석을 세우고 설명하는 안내판을 세우는 것이 최선일 것이다. 이와 더불어 폐사지 샴터로 가는 길에 대한 설명과 표지도 함께 만들어주면 좋을 듯싶다.

누군가는 죽는 그 순간의 모습으로 살아온 삶 전체를 증명하는 예도 있다. 여기 마지막 항전지에서 생을 마감한 다양한 나이의 동학농민군도 그런 경우라고 생각한다. 이들은 각기 살아온 길이 달랐지만, 마지막 순간을 스스로 선택함으로써 함께한 사람들과 같은 꿈을 꾸고 있었으며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증명했다.

130년 전에 올라가 결국 내려오지 못한 사람들을 등 뒤에 두고 나는 올라간 지 몇 시간 만에 산에서 내려와 집으로 간다. 집으로 가면서 생각했다. 대한민국의 미래 세대에게 물려주어야 할 중요한 가치가 함께 잘사는 상생(相生)이면 좋겠고, 더불어 공정한 공정(公正)이면 좋겠고, 불의한 것에 굴복하지 않는 당당함이면 좋겠다고. 이런 가치야말로 130년 전, 대둔산 벼랑 위에 섰던 동학농민혁명군이 흔적으로 남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유산이요, 정신이라고 생각했다.

# 평화의 땅 제주를 위한 서사

제76주년 4·3 추념식 참관기



사진 출처: KBS

잔인한 계절이라는 4월, 4·3을 만나는 것은 늘 고통이고 눈물이다. 아름답다는 표현으로는 부족해 어법에 안 맞는 '너무'가 들어가야 딱 맞는 '너무 아름다운' 섬 제주. 이곳에서 1948년 4월 3일, 이승만 주도의 남한 단독 총선거를 반대하는 항쟁이 일어났다. 38선 남쪽만 실시하는 총선은 결국 남과 북이 분단국가가 될 것이라는 너무도 명백한 분단 시나리오를 거부했다.

제주도민들의 항쟁에 이승만과 미 군정은 대규모 토벌작전으로 제주도를 그야말로 죽음의 섬, 살아있는 것들은 다 죽여도 괜찮다는 초토화 작전을 펼쳤다. 한라산 중산간 지대에 산다는 이유로, 젊다는 이유로, 마을에서 봉기군이 나왔다는 이유로, 부모·형제가 산으로 토벌대를 피해 들어갔다는 이유로, 그저 제주도민이라는 이유로 학살을 당했다. 참으로 말하기 불편하고, 무서운 말이지만, 국어사전은 이것을 양민 학살이라고 정의한다. 그 숫자가 자그마치 3만 명이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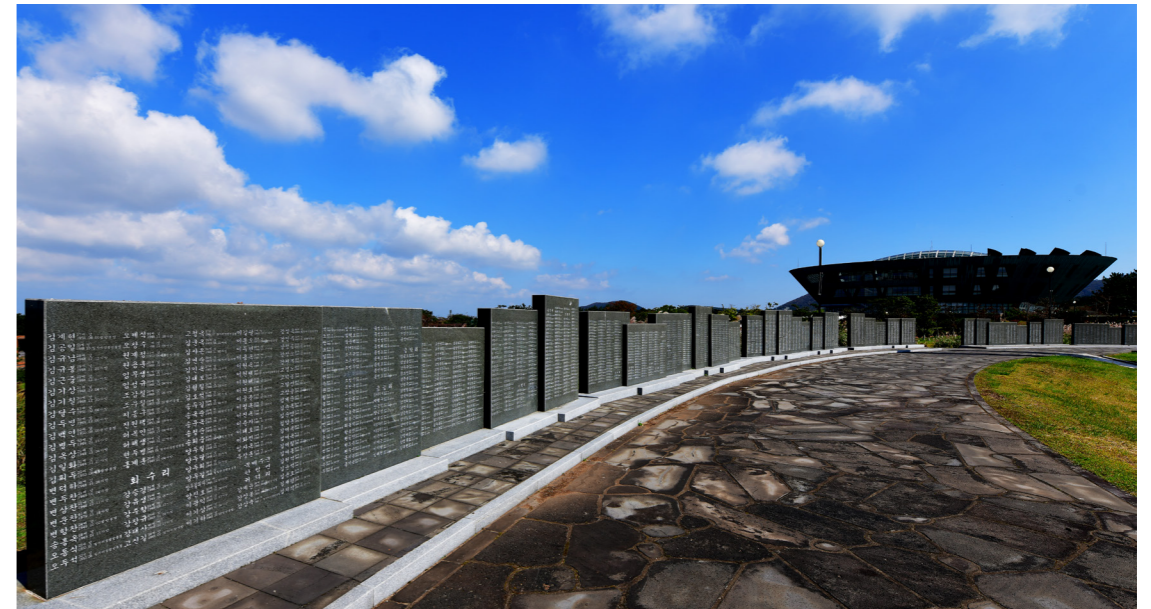
이들은 토벌대에 의해 총탄을 맞았고, 동굴 속에서 연기에 질식사했고, 제주북초등학교 운동장에서 총살되었고, 관덕정 앞 거리에서, 성산 일출봉 아랫마을에서 그리고 제주 관문인 제주국제공항 활주로에서 총살되고 암매장되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수십 명씩 배에 태워져 바다

최두현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기획운영부장

로 가 수장되었고, 수천 명이 목포와 광주, 전주, 대전, 경기도 등의 형무소로 이송되어, 그곳에서 한국전쟁 직후 총살당하거나 행방불명되었다. 76년이 지난 세월이 흘렀지만, 이렇게 잔인하고 무도한 학살이 진행되었다는 것이 믿기지 않는다.

2019년 추념식에서 김연옥 할머니의 사연을 소개한 대학생 손자는 바다가 보이는 곳을 자주 찾는 할머니를 보며 "우리 할머니는 바다를 참 좋아하십니다." 생각하면서도 바다에서 난 것은 멸치 하나라도 먹지 않는 할머니를 보며 이상하게 생각했다고 한다. 뒤늦게 할머니 사연을 들어보니, 4·3 당시 아버지와 어머니, 오빠, 동생이 모두 바다에 수장되어 죽임을 당했다. 그 여덟 살의 할머니는 부모·형제의 시신을 물고기들이 다 먹었을 거라는 생각에 아무리 먹고 싶어도 바다 고기 먹는 것을 참고 70년을 살아왔다고 한다.

76주년 추념식이 열린 올해도 유족 김옥자 할머니는 다섯 살 나이에 아버지와 어머니가 죽임을 당했다. 다섯 살 할머니는 부모가 죽자 고모의 자식이 되어 살았다. 평생 아버지, 어머니라는 말을 한 번도 소리 내어 불러보지 못했다고, 친구들이 "우리 엄마, 우리 아빠" 할 때 자기는 그런 말을 한 번도 해보지 못했다고 한다. 부모 없이 자라며 제대로 배우지 못해 육지에서 식모로 공장 여공으로 일하다 다시 제주로 돌아왔다. 김 할머니는 76주년 추념식에서 AI 기술을 활용해 복원한 아버지 얼굴과 목소리를 처음 봤다. 다소 의례적인 식순과 발언 등으로 진행되던 추념식 현장에서 김옥자 할머니 사연은 모든 참여자가 눈물을 흘리게 했다. 추념식에 온 참여자들도 다섯 살 어린이가 부모 없이 76년을 살아온 삶의 무게와 설움, 한 번도 불러보지 못한 아버지, 어머니를 부르는 눈물에 함께 울었다.



각명비 제주4·3 당시 희생당한 분들의 성명·성별·당시 연령·사망 일시와 장소 등이 기록되어 있다. (출처: 제주4·3평화재단)

죽음의 제주 섬을 피해 4·3 당시 일본으로 밀항한 사람들도 많았다. 많게는 약 1만 명의 제주도민이 일본으로 밀항했다. 일본 오사카 이쿠노구 코리아타운에는 제주 출신들이 특히 많이 살고 있다. 제주 출신 소설가 김석범도 제주 4·3에 빛진 삶에 조금이라도 부끄러움을 덜어내고자 12권짜리 소설 『화산도』를 30년이 넘는 기간에 걸쳐 완성했다. 살기 위해 제주를 탈출한 밀항자의 삶을 그린 반성문 같은 소설을 남겼다. 그것은 소설이 아니라 저자의 눈물이고, 재일 조선인의 피맺힌 절규이며, 살아남은 사람들의 회한일 것이다.

76주년 4·3 추념식에 참석하기 위한 우리 일행은 동아시야민주네트워크 소속, 5.18재단, 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 노근리재단,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그리고 우리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사람들로, 제주 4·3 평화재단의 초청을 받아 참석했다. 100mm 이상의 비가 내린다는 예보가 있었지만, 행사 시간 때인 오전 11시에는 다행히 비바람이 없어 1만 명의 제주도민과 유족들이 참석한 가운데 실외행사로 진행될 수 있었다.

제주 출신 배우 고두심 씨가 부모 없이 살아온 다섯 살

김옥자 할머니를 소개했고, 가수 인순이 씨가 할머니와 유족들을 노래로 위로했다. 국무총리가 유족과 희생자를 위로하고, 국가의 책임과 역할에 미흡한 점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럼에도 제주지사과 유족회장, 행사장에서 만난 사람들은 아직도 밝혀져야 할 진실이 너무 많다고 말했다. 4·3을 왜곡하는 사람들의 무지와 역지를 바로잡아야 하며, 여전히 찾기 못한 행방불명자, 당시 불법 재판으로 수형생활을 했던 사람들에 대한 보상과 배상, 트라우마 치유를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돌아오는 길, 함께한 동료는 "역사적 사건을 기념하는 일의 무게가 참 만만치 않다."라고 말했다. 추념식 장소에서 눈물 흘리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도 자랑스러운 동학농민혁명의 정신을 어떻게 계승하고 선양할 것인지 그 책임감이 더욱 무거워지는 4월이었다.

끝으로 끈질기고 열정적인 활동으로 제주를 인권과 평화의 섬으로 만드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는 4·3평화재단에 깊은 존경과 감사를 드린다.

## (사)동학농민혁명유족회 2024년 정기 대의원 총회



지난 4월 16일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회의실에서 (사)동학농민혁명유족회 2024년 정기 대의원 총회가 열렸다. 주영채 (사)동학농민혁명유족회 이사장의 개회사로 시작된 회의에서는 동학농민혁명유족회 2023년 사업 및 결산안이 상정되어 이에 대한 감사보고를 청취한 후 심의 의결하였다. 아울러 2024년 사업계획 및 예산안도 심의의결하였다.

## 순국 제129주기 전봉준 장군 추모제



지난 4월 24일 제129주년 전봉준 장군 순국 추모식이 서울 종로구 서린동 (종각역 5~6번 출구) 영풍빌딩 앞 ‘녹두장군 전봉준’ 동상 앞에서 열렸다. 사단법인 전봉준장군기념사업회(이사장 전해철) 주최로 열린 추모식은 “동학농민혁명 130주년을 맞은 오늘 전봉준 장군님의 나라 사랑 정신이 더욱 그립다.”는 전해철 이사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전봉준 장군 활동 소개, 추모 공연, 헌화, 분향 등의 순으로 진행되었다.

## 김개남 장군 순국 130주기 추모제



지난 4월 13일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산외면 동국리에 소재한 김개남 장군 묘역에서 김개남장군기념사업회(회장 김호영) 주최로 김개남 장군 순국 130주기 추모제가 열렸다. 추모제는 길놀이로 시작으로 국민의례, 개회사, 추모사, 고전문 낭독, 제례, 분향재배, 헌화 순으로 진행되었다. 이날 행사에는 송금현 정읍시 부시장, 곽형주 (사)동학농민혁명계승사업회 이사장, 안경엽 남원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 회장, 기념단체 관계자, 지역 주민 등 150여 명이 참석하였다.

## 원평집강소 동록개의 꿈 ‘다시 원평취회’



2024년 4월 13~14일 양일간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금산면에 위치한 원평집강소에서 동학농민혁명 130주년 기념행사가 열렸다. ‘원평집강소 동록개의 꿈’이라는 주제 아래 전시, 체험, 문화공연, 인문학 강의 등으로 다채롭게 펼쳐진 이날 행사는 (사)김제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대표 김왕배)가 주최하고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이 후원하였다.

동학농민혁명 원평집강소는 2015년 문화재청의 지원을 받아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에서 역사적 고증을 거쳐 복원하였다. 이후 2023년 원평집강소 뒤편에 지상 2층의 복합 문화 공간을 추가로 조성하였다.

### 제130주년 동학농민혁명 무장기포기념제



무장포고문 낭독 주영채 동학농민혁명유족회 이사장

녹두대상 수상 (사)장흥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

지난 4월 25일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공음면 구암리 동학농민혁명 무장기포지(사적 563호) 일원에서 제130주년 동학농민혁명 무장기포기념제가 열렸다. 고창군 주최, (사)고창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이사장 정기백) 주관으로 열린 행사는 동학농민혁명 정신 선양에 공헌한 사람에게 수여하는 제17회 녹두대상 상을 비롯하여 동학농민군 진격로 걷기, 무장읍성 입성 재연(再演) 등 다채롭게 진행되었다. 기념제에는 심덕섭 고창군수, 임정호 고창군의회 군의장, 신순철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이사장, 주영채 (사)동학농민혁명유족회 이사장,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유족, 기념단체 관계자, 고창군민 등 1천여 명이 참석하였다.

한편 제17회 녹두대상은 (사)장흥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이사장 고재국)가 수상(受賞)하였다. 장흥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는 전남 장흥군 동학농민혁명 석대들 전적지 국가사적 지정, 장흥동학농민혁명기념관 건립 등을 성공적으로 추진하여 동학농민혁명 정신 선양에 크게 기여하였다. 수상자인 고재국 이사장은 “동학농민혁명 정신선양을 위해 기여한 개인과 단체가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장흥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에게 상을 주셔서 몸 둘 바를 모르겠다.”며 “갑오선열의 숭고한 뜻을 선양하는 일에 더욱 분발하라는 격려와 채찍으로 여기고 앞으로 더욱 정진하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 130주년 부안 동학농민혁명 백산대회 기념식



지난 5월 1일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백산면에 있는 백산성 일원에서 제130주년 부안 동학농민혁명 백산대회 기념 행사가 열렸다. 부안군이 주최하고 부안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회장 배의명)가 주관한 이날 행사는 백산봉기 기념탑 헌화를 시작으로 동학농민군 행군 재연, 식전 공연, 기념식, 식후 공연 순으로 진행되었다. 기념식에는 권익현 부안군수, 김광수 부안군의회 의장, 신순철 기념재단 이사장, 이원택 국회의원, 기념단체 관계자, 부안군민 등 300여 명이 참석하였다.

### 제57회 동학농민혁명기념제



511명 퍼포먼스 '그날의 함성'



511명 퍼포먼스 '그날의 함성'



축사 이학수 정읍시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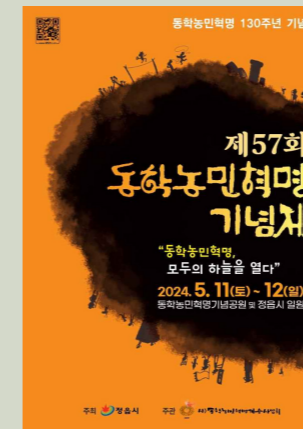
축사 신순철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이사장



사발통문 낭독



전국댄스경연대회 '그날의 몸짓'



지난 5월 11일(동학농민혁명기념일)부터 12일까지 이틀간 제57회 동학농민혁명기념제가 동학농민혁명기념공원(정읍 황토현 전적) 곳곳에서 펼쳐졌다. ‘동학농민혁명, 모두의 하늘을 열다’라는 주제로 열린 기념제는 511명의 시민, 청소년, 농약인, 지역 문화 예술인이 함께 행진하는 퍼포먼스 ‘그날의 함성’, 전국댄스경연대회, 전국소년소녀 합창대회, 청소년 토론회, 시립농악단 공연, 마당극, 전국 농악 경연대회, 체험행사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되었다.

### 제14회 동학농민혁명 대상 이만열 전 국사편찬위원회 위원장 수상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주최로 열린 제57회 동학농민혁명 기념제에서 제14회 '동학농민혁명 대상' 시상식이 열렸다. 수상자는 이만열 전 국사편찬위원장으로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명예회복심의위원회' 위원장(2005~2010), '동학농민혁명기록물 유네스코 등재 추진위원회' 위원장(2015~2023)을 역임하면서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의 명예 회복과 동학농민혁명기록물 세계 기록유산 등재에 크게 기여하였다. 이만열 수상자는 동학농민혁명 대상 시상금(2천만 원) 전액을 동학농민혁명 연구와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의 명예회복을 위해 사용해달라고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에 기부하였다.

### 무명동학농민군 위령제



지난 5월 12일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고부면 신중리 대외마을에 위치한 무명농민군위령탑 앞에서 이름도 남기지 못한 무명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의 넋을 기리는 위령제가 열렸다. 정읍시가 주최하고 동학농민혁명계승사업회와 정읍시농민회가 공동 주관한 위령제는 길놀이, 위령제 추모 제례, 기념사, 축사, 위령제 추모 공연, 신사발통문 작성, 음복 및 오찬 순으로 진행되었다. 이날 행사에는 윤준병 국회의원, 고경윤 정읍시의회 의장, 송금현 정읍시 부시장, 광형주 동학농민혁명계승사업회 이사장, 심재식 동학농민혁명정읍유족회 이사장, 하원오 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 양옥희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회장, 기념단체 관계자, 지역민 등 200여 명이 참여하였다.

### 동학농민혁명 전주 입성 제130주년 기념식



헌화 전주 녹두관



기념 전주 녹두관



기념공연(전주시립국악단) 전주 전라감영



기념 촬영 전주 전라감영



지난 5월 31일 녹두관(전주시 완산구 동완산동)과 옛 전라감영(전주시 완산구 전라감영로) 선화당 일원에서 동학농민혁명 전주 입성 130주년 기념식이 열렸다. 전주시와 (사)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가 공동 주최·주관한 이번 행사는 <130년 전, 그날, 전주성 바로 여기>라는 주제로 '1부: 녹두관 무명동학농민군 지도자 참배', '2부: 전주 입성 기념식', '3부: 동학농민혁명 전주 입성 기념 공연' 순으로 진행되었다.

기념식은 기념사(김인태 전주부시장), 환영사(이병하 전주시의회 부의장), 축사(박민수 동학농민혁명기업사업회 이사장, 신순철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이사장, 주영채 동학농민혁명유족회 이사장), 역사 특강(이광재 소설가), 기념 공연(전주시립국악단) 등으로 진행되었다. 이날 행사에는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유족을 비롯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관계자 등 많은 전주 시민이 참석하였다. 한편 1894년 5월 31일(양력) 전주성을 점령한 동학농민군은 6월 11일(양력) 조선 정부와 '전주화약'을 맺고 집강소를 설치·폐정개혁을 단행하였다.



### 함평군 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 발족식



4월 16일 전남 함평군 신광면 사천마을에서 함평군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회장 장영식) 발족식이 열렸다. 발족식이 열린 4월 16일은 동학농민혁명이 함평군으로 진격한 날이고, 행사가 열린 사천마을은 동학농민혁명에 참여한 장경삼, 장옥삼, 장공삼 삼 형제의 고향으로, 삼 형제의 공적비가 세워져 있는 곳이다. 이날 행사에는 모정환 전남도의원, 광학주(사)동학농민혁명계승사업회 이사장, 고재국 전국동학농민혁명연대 대표, 기념단체 관계자,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유족, 지역 주민 등이 함께하였다.

### 제130주년 동학농민혁명기념식



5월 10일 장흥동학농민혁명기념관 일원(장흥 석대들 전적 제498호)에서 제130주년 장흥동학농민혁명기념식이 열렸다. 전라남도과 장흥군이 주최하고, 사단법인 장흥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가 주관한 기념식은 풍물놀이와 '사람이 하늘인 세상' 특별 공연을 시작으로 국민의례, 경과보고, 유공자 표창, 폐정개혁안 12개조 낭독, 만세 삼창, 분향 순으로 진행되었다. 이날 행사에는 김성 장흥군수, 명창환 전라남도 행정부지사, 고재국 사단법인 장흥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 이사장, 전국 기념단체 관계자,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유족, 지역 주민 등 500여 명이 참석하였다.

### 제130주년 장성 황룡 동학농민혁명군 승전 기념식



5월 27일 장성 황룡 동학농민군 승전기념공원(장성군 황룡면 장산리, 장성황룡전적 사적 406호)에서 전라남도(장성군) 주최, 장성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회장 조복래)와 광주·전남 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회장 이상식) 주관으로 제130주년 장성 황룡 동학농민혁명군 승전 기념식이 열렸다. 기념식은 식전 공연, 국민의례, 경과보고, 폐정개혁 12개조 낭독, 기념사, 축사에 이어 문화 공연으로 기념탑 뒷면에 새겨진 광재구 시인의 시(詩) '조선의 눈동자'가 낭송되었다.

이날 행사에는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유족, 이개호 국회의원, 신순철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이사장, 김한중 장성군수, 고재진 장성군의회 의장을 비롯하여 전국 기념단체 관계자, 지역 주민 등 300여 명이 참석하였다. 한편 전남 장성 황룡전적은 동학농민혁명 당시 농민군이 임금의 군대인 경군(京軍)과 전투를 벌여 크게 승리한 곳으로, 전라도 수부 전라감영이 있던 전주성 점령의 발판이 되었다.

### 제130주년 동학농민혁명 우금티 기념식



공연 '동학의 노래'

축사 박수현 국회의원 당선인

5월 11일 충남 공주시 우금티전적지에서 (사)동학농민전쟁우금티기념사업회(이사장 박찬석) 주관, 공주시 후원으로 제130주년 동학농민혁명 우금티 기념식이 열렸다. 금강풍물패의 길놀이를 시작으로 기념사, '동학, 희망의 몸짓' 연극, 합창 등 기념공연, 헌화 순으로 진행되었다. 이날 행사에는 박찬석 이사장, 박수현 국회의원 당선인, 이원하·박노찬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유족, 박남식 전 공주농민회 회장, 이일주 공주문화원장을 비롯하여 전국 기념단체 관계자, 지역 주민 등 200여 명이 참여하여 감오 선열의 숭고한 정신을 기렸다.

# 녹두꽃 — 다시 피다

## 동학농민혁명기념공원 교육·체험 프로그램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에서는 기념공원 생태탐방 <녹두 꿈>, 미션을 해결하는 역사탐방 <1894년, 녹두 꽃의 기억>, 박물관 온라인교육 <1894년, 동학농민군을 만나다>, 박물관 스스로 학습 <1894! 가보세 갑오세>, 기념관 프로그램 <1894 시간여행>, <녹두 꾸러미 탐험대> 등 다양한 교육·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1894년, 녹두꽃의 기억> 정읍 수성초등학교 (2024.4.24.)



<꽃과 함께> 정읍 중앙유치원 (2024.4.23.)



<1894년, 녹두꽃의 기억> 남원 대산초등학교 (2024.4.26.)



<1894! 가보세 갑오세> 정읍 샤론어린이집 (2024.5.14.)



<꾸러미 탐험대>  
정읍 동신초등학교 (2024.5.30.)



<1894! 가보세 갑오세>  
정읍 동초등학교 (2024.5.14.)



<1894, 시간여행>  
익산고등학교 (2024.5.28.)



<1894, 시간여행>  
전주 평화중학교 (2024.5.29.)

<꾸러미 탐험대>  
정읍 동신초등학교 (2024.5.31.)

## 2024년 교육·체험·해설 프로그램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에서는 어린이·청소년 대상 교육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동학농민혁명기념공원에 조성된 박물관, 기념관, 기념 조형물, 자연환경 등을 활용한 교육·체험·해설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 박물관 / 기념공원 교육·체험 프로그램

구분	프로그램	대상	장소	일정
상설	1894! 가보세 갑오세	모든 대상	박물관	1~12월
온라인	1894년, 동학농민군을 만나다	초등 4~6학년	온라인 (ZOOM)	3~11월
	세계기록유산으로 만나는 동학농민군	(국외) 한인 학교		
기념공원	녹두 꿈	5세 이상(단체)	기념공원	4~11월
	1894년, 녹두꽃의 기억	초등 4학년 이상(단체)		

- 기념공원 <녹두 꿈>은 생태 탐방으로 130년 전 황토현 모습을 재현한 동학농민혁명기념공원 자연환경을 탐방합니다. 초가집의 지붕이나 방석으로 쓰였던 부들을 관찰하고 열매나 물고기를 먹으러 온 새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 기념공원 <1894년, 녹두꽃의 기억>은 역사 탐방으로 130년 전 황토현으로 시간 여행을 하는 체험입니다. 동학농민군이 되어 미션을 수행하며 진행됩니다.

### 기념관 교육·체험 프로그램

구분	프로그램명	대상	장소	일정
기념공원 외부	찾아가는 동학농민혁명기념관	(전국)초·중고	해당 학교	3~12월
답사	1894 시간 여행	(전북특별자치도)중고등	기념관, 전북특별자치도 유적지	6~11월
	녹두 꾸러기 탐험대	(전북특별자치도)초등 5~6학년		
교원직무연수	동학농민혁명 바로 보기	(전국)초·중등 교원		7~8월

### 해설 프로그램

구분	해설	내용	대상	일정
기념공원	기념공원 내 조형물, 생태해설 등	30만㎡ 부지에 조성된 다양한 기념시설물과 아름다운 자연 경관을 볼 수 있습니다.	모든 대상 (단체)	상시
박물관 해설	박물관 전시	동학농민혁명의 세계사적 의미를 패널, 유물, 영상으로 관람할 수 있습니다.		
기념관 해설	기념관 전시	기획전시, 상설전시, 어린이 전시를 통해 동학농민혁명을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재단 홈페이지(<http://www.1894.or.kr>)를 참고하세요.(문의: 063. 530. 9400)

보도일	언론사	기사 제목
2024. 03. 24	전북도민일보	고창군 농민회, 무명 농민군 위령제 및 영능 발대식 개최
2024. 03. 26	뉴스1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서울대 규장각과 업무협약(MOU) 체결
2024. 03. 27	연합뉴스	정읍시, 제57회 동학농민혁명 기념제 동학농민혁명 대상 후보자 추천서 접수
2024. 04. 11	KBS뉴스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국립아시아문화전당과 문화예술 활성화 협약 체결
2024. 04. 23	국민일보	'동학농민혁명' 표준국어대사전에 공식 등재됐다
2024. 04. 23	전북일보	'제14회 동학농민혁명 대상' 수상자 이만열 전 국사편찬위원장 선정
2024. 04. 25	전라일보	동학농민혁명 제130주년 고창무장기포기념제 열려
2024. 04. 25	연합뉴스	동학농민혁명 기념 우표 57만6천 장 발행
2024. 05. 07	광주매일신문	광주 동곡미술관, 동학농민혁명 130주년 특별전 개최
2024. 05. 07	전북일보	호남오페라단, 동학농민혁명 130주년 기념 창작 오페라 '녹두' 초연
2024. 05. 07	연합뉴스	'모두 다 꽃이야'... 11일 '제130주년 동학농민혁명 기념식'
2024. 05. 10	뉴스1	동학농민혁명 130주년 국가 기념식 개최
2024. 05. 11	YTN	"모두 다 꽃이야"... 정읍 황토현서 동학농민혁명 130주년 국가기념식 개최
2024. 05. 12	전북일보	세계서예비엔날레 동학농민혁명 130주년 기념 특별전 개최
2024. 05. 12	전남일보	장흥군 석대들에 울려 퍼진 '사람이 곧 하늘'
2024. 05. 13	충남일보	공주시, 제130회 동학농민혁명 기념식 개최
2024. 05. 13	전북일보	'동학농민혁명대상 수상' 이만열 전 국사편찬위원장,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에 상금 기증
2024. 05. 13	JTV뉴스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서훈 위한 법 개정 재추진"
2024. 05. 16	전북일보	[세계기록유산이 된 '동학농민혁명기록물'] ①연재를 시작하며
2024. 05. 20	전라일보	동학농민혁명 130주년 기념 태권소리극 '녹두' 공연
2024. 05. 23	연합뉴스	동학농민군 전주 입성 기념행사, 31일 개최
2024. 05. 23	전북일보	[세계기록유산이 된 '동학농민혁명기념물'] ②동학농민군 유광화 편지
2024. 05. 29	아주경제	제130주년 동학농민혁명 백산대회 기념 미술전 개최
2024. 05. 30	전북일보	[세계기록유산이 된 '동학농민혁명 기록물'] ③ 취어(聚語), 석남역사(石南歷史)
2024. 05. 31	뉴스1	정읍시, 동학농민혁명 고부농민봉기 재조명 학술대회
2024. 06. 02	전북일보	[창간 74주년 특집] 130주년 동학농민혁명, 전북을 넘어 전국을 발판으로 도약해야
2024. 06. 02	전북일보	동학농민혁명 전주 입성 130주년 기념식 성황
2024. 06. 04	전북도민일보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동학농민혁명연구소, 학술지 '동학농민혁명 연구' 제2호 발간

## 독자 설문조사 및 퀴즈

1. 이번 호 『녹두꽃』에서 가장 좋았던 기사와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2. 앞으로 『녹두꽃』에서 다루었으면 하는 내용을 적어주세요.

3. 동학농민혁명기록물이 유네스코 어느 유산에 등재되었나요?

① 세계유산 ② 무형문화유산 ③ 세계기록유산



· 응모 방법: 오른쪽 QR 코드 이용

· 응모 기간: 2024년 7월 31일까지

· 다섯 분을 선정하여 소정의 상품을 드립니다.

## 2024년 봄호 『녹두꽃』 (통권 55권) 독자 의견

‘동학농민혁명 130주년 기념 특집’ 기사를 통해 동학농민혁명 역사를 사진 자료와 함께 한눈에 볼 수 있어서 유익했습니다. \_2718님(광주)

‘유족 인터뷰’를 읽으면서 개인의 가족사면서 한국의 역사를 들여다볼 수 있어서 마음에 많이 와닿았습니다. 지속적으로 유족 인터뷰를 게재해 주면 좋겠습니다. \_3663님(부산)

외국인들이 동학농민혁명기념공원을 방문하여 한국의 역사인 동학농민혁명에 관심을 갖는 모습이 새로웠습니다. \_1630님 (대구)

모든 기사가 생생하고 좋았습니다. 그중에도 고창군에서 건립한 전봉준 장군 동상 ‘羲의 깃발 아래’ 제막식 내용이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_7996님(부산)

‘동학농민혁명 130주년 의미를 되새기며’라는 주제로 ‘인권과 평화’ 코너에서 일반인들이 동학농민혁명을 바라보는 시각을 알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_2466님(정읍)

●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녹두꽃』에 따뜻한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보내주시는 의견은 더 알찬 『녹두꽃』을 제작하는 데 소중히 활용하겠습니다.

##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유족등록 신청 안내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명예회복 심의위원회에서는 봉건제도를 개혁하고 일제의 침략으로부터 국권을 수호하기 위해 일어난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와 그 유족의 명예를 회복하고자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유족등록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 대상자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의 자녀, 손자녀, 증손자녀 및 고손자녀(외손 포함)

\*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란 1894년 3월부터 봉건체제 개혁 및 9월에 일제의 침략으로부터 국권을 수호하고자 봉기하고 항일 무장투쟁을 전개한 농민 중심의 혁명 참여자를 말한다.

### 신청 서류 및 제출방법

#### 가. 신청 서류

-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의 유족등록 신청서
- 신청인의 주민등록등본 각 1부
- 참여자와 신청인의 유족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제적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족보), 신청인의 선조가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였음을 알 수 있는 자료

#### 나. 제출 방법

-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방문 또는 우편 제출
- 주소 :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덕천면 동학로 742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명예회복 심의위원회  
※ 온라인 및 FAX 접수는 받지 않음

### 문의처

-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명예회복 심의위원회 ☎ 063-530-9434 ~ 5
- 위원회 홈페이지(www.cdpr.go.kr) 또는 기념재단 홈페이지(www.1894.or.kr)



Inscribed on the International Register  
Memory of the World